

Sulwhasoo

VOL.85 MAY/JUNE 2018

Sulwhasoo

VOL.85

Sulwhasoo

MAY/JUNE 2018





하트 머릿장 / 함도하
MDF, Steel, 자개, 옷칠, 무늬목 / 597 × 540 × 500mm / 2017

한번 집 안에 들이면 쉽사리 바꾸거나 버릴 수 없어 오래 곁에 두는 가구는 어찌 보면 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자 벗이다. 늘 같은 자리에서 즐거울 때나 슬플 때, 좌절할 때나 행복할 때의 나를 묵묵히 지켜본다. 지친 몸을 품어주고, 쉴 자리를 내어주며 위로를 건넨다. 가구 디자이너 함도하 작가가 만든 가구는 위로의 힘이 더욱 강하다. 보기만 해도 마음을 말랑하게 하는 하트가 새겨진 그림 그대로 이름도 '하트 머릿장'인 작품에 작가는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살다 보면 누구나 겪는, 사람이 밟고 싶어서 마음이 지옥 같을 때 가구가 건네는 위로는 파도치던 마음을 잔잔하게 어루만진다. 작가는 쓰임새도 만끽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표면 마감을 차량 도장 방식으로 처리해 물걸레로 서슴없이 닦아도 되고, 흠집도 쉽사리 나지 않으니 가까이 지내기 더 좋다. 분명 어린 시절 할머니의 방에서 본 머릿장과 닮았지만 예스럽지 않다. 요즘의 모던한 스타일의 가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유도 오직 전통 머릿장의 형태와 경첩만 유지한 채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유쾌한 이야기를 더한 덕분이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심포가 되어주고, 쓸수록 쓸 맛 나는 함도하의 가구. 오래 눈길이 머무는 아름다운 시 한 편 같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Old furniture, which has been placed in a certain area in your house for a long time as it is hard to change or relocate, feels like a family member or a friend who knows you the best. It quietly watches over you whenever you are happy, sad and frustrated. It embraces your tired body, and comforts you with a place to rest. The furniture created by furniture designer Ham Do Ha is more powerful in terms of providing comfort. 'Heart Meoritjang' is engraved with hearts, representing the artist's yearning for your love. When your heart is troubled, furniture can calm your agitated mind. The artist can also made it practical. The surface is finished like that of the exterior of a vehicle, so you can simply wipe it off with a wet rag. It is easier to mingle with it because it resists dents. It certainly resembles the Meoritjang that you saw in your grandmother's room when you were a child, but it is not traditional. It can blend well with the modern furniture styles because it has reinterpreted everything, except the shape and the hinges of traditional Meoritjang, with the addition of fun stories. Ham's furniture will give you a break when you look at it. It is like a beautiful piece of poetry that captivates you for a long time.

단단한 기본으로 만들어낸 피부 자신감
에센셜 라인

Essential Line



어떠한 외풍에도 흔들림 없이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단계별로 영양과 생기를 부여하는 에센셜 라인은 얼굴에 본이 다른 아름다움을 꽃피웁니다.

Protects the skin from external factors
The Essential Line nourishes and revitalizes the skin step-by-step
to enhance your beauty beyond your expectations.



Sulwhasoo

MAY/JUNE 2018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귀한 원료를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고 내면과 외면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의 진귀한 원료로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연을 닮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동시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 아니라 내면까지 아름답게 가꾸어 내면과 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브랜드, 설화수. 3000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피부 균형을 다스려주는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가능케 한 한국의 우수한 효능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 '바이오컨버전 기술'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 캐나다, 프랑스까지 전 세계 12개국에 진출, 아시아안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Sulwhasoo offers the ultimate skin solution that treats the skin from within by incorporating modern skin science into legendary ingredients infused with timeless Asian wisdom and presents holistic beauty to restore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The Sulwhasoo brand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pursues beauty reminiscent of nature with precious natural ingredients and delivers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between body and mind by creating beauty from the inside out. Sulwhasoo globally promote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with the JAUM Balancing Complex™, an optimal blend of five ingredients, carefully selected from more than 3,000 medicinal herbs, Korean ginseng, the legendary ingredient that makes Sulwhasoo's unique formulas even more special, and Sulwhasoo's cutting-edge Bio-conversion Technology™. As of 2018, Sulwhasoo has established itself as an Asian Beauty Creator, operating in 12 countries around the world such as South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the US, Canada and France.

Sulwhasoo

VOL.85 MAY/JUNE 2018



펼 치 다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 08
설화지혜
스스로 알아지는 힘
- 12
피부 섬기기
해사한 피부를 되찾는 가장 완벽한 방법
- 16
新 장인을 만나다
가구의 힘
- 22
공간미감
나무를 배우는 숲
- 28
건너다
보고 싶은 마음이 호수만 하다

발행일: 2018년 5월 2일(통권 제85호)
발행처: 인세홍 편집인·이우동
발행처: (주)아모레퍼시픽 기획 및 제작·설화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팀
제품 문의: 고객센터(080-023-5454, 수신자 요금 부담)
편집, 디자인: 가이 미디어 02317-4921 편집: 박효성, 민소연 디자인: 조윤희
사진: 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 덕일 인쇄 (주)태산인쇄 02)853-6574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Sulwhasoo〉는 www.sulwhasoo.com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 리 다

- 36
설화인
온갖 좋은 것들의 통로, 이지선이라는 '문'
- 44
어우러지다
거울의 영롱한 마법
- 50
설화풍경
돌과 흙, 바람과 오름을 소담하게 담다
- 54
설화보감
요리의 풍미를 배가시키는
빛 고운 페스토 요리
- 60
아름다운 기행
예술의 도시, 그 안에서 유명하다
- 66
설화수를 말하다
무릉도원의 행복을 선물하는 다정한 봄
- 72
설화공간
설화수 한복 체험 프로그램, 설화단장
- 74
설화수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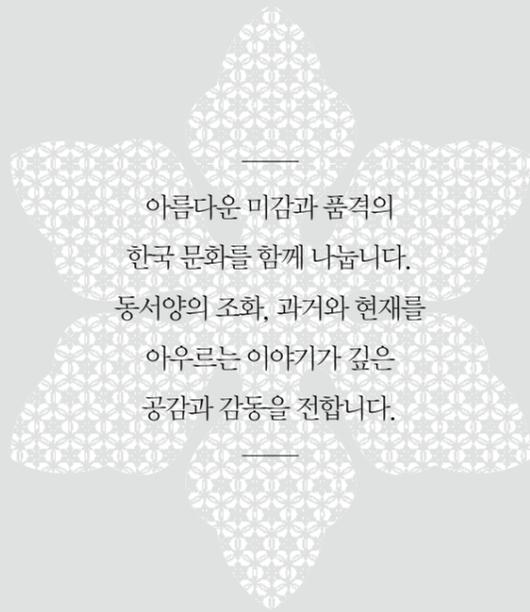


익 히 다

- 78
배움의 기쁨
부채, 좋은 바람 일으키는 자애
- 82
한국의 멋
차곡차곡 정성 쌓아 나서는 봄길
- 84
설화애장
아름다움이라는 자존감
- 86
읽다
새롭게 발견하는 한국 춤의 지평
- 90
집 안 단장
금빛의 풍요가 일상을 채운다
- 92
몸 단장
같이라서 가치 있고 더 어여쁘다



- 94
문화 즐기기
- 96
프로덕트 맵
- 98
독자 선물



펼
치
다



스스로 맑아지는 힘 Clarifying with inner strength

황사와 미세먼지로 호흡조차 쉽지 않은 요즘, 연약하고 민감한 피부는 비명을 지른다.

인공적인 환경 요소와 누적된 스트레스가 몸에 독으로 작용하고, 그 영향은 고스란히 건강의 창인 피부에 비친다.

이럴 때 해독과 정화는 피부 본연의 힘을 기르기 위한 오랜 지혜다.

글 민소연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디톡스detox 열풍이 분 지는 이미 오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있다. 게다가 단순함이나 가벼움, 비움 등의 가치에 주목하는 새로운 라이프 트렌드가 더해져, 당분간 '비우고 가볍게 하여 원래의 힘을 찾는' 수많은 영역의 디톡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선조들의 옛 지혜 역시 디톡스, 해독의 개념을 중요하게 여겼다. <동의보감>에서는 다양한 외부 자극이나 오욕칠정의 감정이 만드는 스트레스가 몸에 쌓여 독으로 작용해 건강을 해친다고 보았다. 이 독소는 담음, 어혈, 식적 등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몸의 겉과 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독은 주로 후천적인 섭생에 의해 생겨나기도, 개선되기도 한다. 즉 타고난 기질을 바꿀 수는 없지만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 후천지기는 올바른 섭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올바른 섭생이란 무엇일까? 한의학에서는 정도를 지나치는 과도함, 그리고 통통하지 않아 정체되어 있고 열이 생기는 상태가 독을 부른다고 이른다. 과식하여 섭취한 영양분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쌓이면 무거워지고 나쁜 기운이 생긴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는 피부에 바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Detoxification (detox)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but many people are still curious about the practice. With the new life trend that focuses on the value of simplicity, lightness, and emptiness, the popularity of detox 'to empty and lighten oneself to restore natural strength' is expected to continue in various areas. Korean ancestors also wisely valued the concept of detox. <Donguibogam> stated that various aggressors or stress from aggressive emotions pile up in your body, thus harming your health. Toxicity is classified into poor circulation of energy, blood, and food. Toxicity that harms your body inside and out, depends on what you eat. You cannot change your innate traits, but your acquired traits can be fixed by proper diet. What is the proper diet? In Korean Medicine, anything excess and stagnant due to poor circulation can cause fever and toxicity. When you overeat, and if the nutrients are not used properly, your body will become heavier, generating negative energy. Such unhealthy condition will quickly show on your skin.



옷칠 매트와 옷칠 접시는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파스텔 톤 볼, 접시, 컵은 모두 장미네 작가.

〈조선왕조실록〉 정종 1년 3월 13일자에는 과거 건강에 대한 선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등장한다. 조선 2대 임금인 정종은 왕자의 난으로 짧은 기간 재위해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꼈고, 재위 기간에도 정무보다는 격구로 소일했다. 그 이유를 정종은 이렇게 설명했다. “즉위한 이래로 경계하고 삼가는 마음을 품어서 병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데, 근일에 다시 병이 생겨 마음의 기운이 혼미하고 늘어져서 피부가 날로 여위어간다.” 피부와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정체를 막고 기를 순환시키려는 노력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역대 왕들은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압박감, 과음과 과식으로 피부병을 많이 앓았다. 이를 다스리기 위해 처방된 약재는 특히 해독 작용이 탁월했다. 숙종의 부스럼을 치료하기 위해 〈승정원일기〉에 언급된 금은화金銀花는 인동덩굴의 꽃봉오리로 열을 내려 해독시키고 피를 맑게 하며, 갈증을 없애고 팽만감을 누그러뜨린다. 그 밖에 몸에 있는 열독을 제거하는 처방에 부평, 화피, 노봉방, 선퇴 등의 해독 약재가 자주 사용되었다. 한편 뽕나무 뿌리 껍질인 상백피는 폐의 열을 내리고 미백 작용이 커 허약한 체질과 기미의 치료에 자주 쓰였고, 황토는 놀라운 자정 효과로 몸의 독소가 빠지고 기운을 통하게 한다. 〈동의보감〉에서는 몸의 독소를 빼는 방법으로 황토를 걸러 내려받은 지장수로 몸을 씻는 황토 목욕을 1년에 1, 2회 하도록 권했다. 이처럼 몸의 중도를 찾아 건강한 아름다움까지 찾아내는 것, 예로부터 전해져 아직도 그치지 않는 우리의 노력이자 삶을 대하는 기본적인 성실함이 아닐까. S

On March 13, marking King Jeongjong's 1st year, <Joseon Wangjo Shillok> introduced an episode on how Korean ancestors viewed health. King Jeongjong, the 2nd king of Joseon, ruled for a short period due to the Revolt of the Princes, and his life was always threatened. He enjoyed a ball game called Gyeokgu more than ruling the kingdom. He explained: "I was always on alert and restrained since I was enthroned, so I did not know that I had an illness. Now I am ill again, and my skin is weakening by the day as my mind is agitated." This story tells u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kin and stress, and how King Jeongjong tried to circulate his energy by playing sports. As a matter of fact, the kings of Joseon often suffered from skin troubles due to excess workload, mental stress, and excessive drinking and eating. The prescriptions they used were particularly focused on detox. Lonicera japonica, which is mentioned in <Seungjeongwon Ilgi> to treat King Sukjong's boils, refers to the flower buds of Japanese honeysuckle that is used to relieve fever while clarifying the blood and removing thirst and swelling. Other fever-relieving formulas, such as Lemna minor, cherry blossom barks, Vespae nidus, and Cicandidae periostracum, were often used as a means of detoxification. Mulberry barks were often used to treat weakness and age spots as they cooled the lungs and whitened the skin, while red clay removed the toxins in the body, and circulated energy with amazing purifying effects. <Donguibogam> suggested taking red clay baths using filtered red clay water once or twice a year to detoxify the body. Finding the core of your body to achieve the best of health is the fundamental aspect of life that has been handed down for generations.



녹색 원형 불은 지승민의 공기 꽃잎 불은 조은샘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오벌 플레이트와 합은 이혜미 작가.

해사한 피부를 되찾는 가장 완벽한 방법 The best way to restore vibrant skin

'신이 내린 선물'이라는 수식이 있을 정도로 항산화 성분을 가득 품은 산자나무 열매가 담긴 쉬어 래스팅 젤 쿠션과 파운데이션은 좋아 보이는 피부를 넘어 좋은 피부로 가꿔준다. 설화수가 새롭게 선보이는 해사한 피부 표현으로 소녀 시절의 발그레한 생기가 다시금 찾아온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일러스트 임성규

해사하고 건강한 피부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노화의 주범인 활성 산소를 억제하고 항산화 기능이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등의 성분의 도움으로 탄력과 수분을 채워주어야 한다. 설화수는 산자나무 열매가 품은 항산화 능력에 주목했다. 산자나무 열매는 비타민 C 함유량이 포도의 265배, 사과 176배나 많고 비타민 E, 아미노산 등 각종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신이 내린 선물'로 불리며 피부에 생기를 채워주는 효능이 있다. 산자나무 열매의 귀한 성분은 저온에서 건조하는 방식으로 추출해 자연 그대로의 영양 성분을 보존하고, 그렇게 얻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쉬어 래스팅 젤 쿠션과 파운데이션에 담겨 특별한 해사함으로 빛난다. 바를수록 자연스레 생기가 스미는 진귀한 경험을 선사한다.

In order to achieve healthy and radiant skin, we need to restrain oxygen free radical, the main cause of skin-aging, and restore lost resilience and hydration with vitamin and mineral components, which have anti-oxidant function. Sulwhasoo has concentrated on extracting the anti-oxidant effect of Sea buckthorn berries. Sea buckthorn is often called as 'the present from the God' since its Vitamin C content is 265 times more than that of grapes, and 176 times more than that of apples. It is also rich in various nutrients, such as Vitamin E and amino acids, thus replenishing the skin's vitality. The precious substances of Sea buckthorn berries are extracted by drying them under low temperatures to preserve their natural nutrition. These powerful antioxidants are extracted in such a way so that Sheer Lasting Gel Cushion and Sheer Lasting Foundation deliver exceptional radiance. You can enjoy the unique experience of natural vitality with these products.

하얀 꽃잎을 흩뿌린 듯한 느낌의 볼,
면기 접시는 윤상현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백유 신나팔꽃 컵은 이세용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가죽 반침이 둘러진 황동 소재 볼은
모두 최예원 작가.



쉬어 래스팅 젤 쿠션

멜팅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망이 만나
피부를 해사하게 연출하는 보송한
타인의 쿠션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담은 산자나무
열매 추출물과 쉬어 하이dra 포몰러가
만나 해사함을 선사하는 리퀴드
파운데이션

화장의 기본은 잡티와 칙칙함을 가린 맑고 자연스러운 피부 바탕이다. 더불어 오래 지속되는 해사
한 피부 표현은 누구나 바라는 바다. 특히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원한다면 이 기본은 더욱 충실하
게 지켜져야 한다. 이토록 섬세한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설화수는 독보적인 기술을 마음껏 펼쳐낸
새로운 메이크업 라인, 쉬어 래스팅 젤 쿠션과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을 선보인다.

쉬어 래스팅 젤 쿠션은 원래 자신의 피부인 듯 자연스러운 밀착을 위해 특별히 신경 썼다. '멜팅 젤
텍스처'를 적용해 바르는 즉시 피부 온도에 반응하여 품고 있던 에센스는 피부에 흡수되고, 베이스
는 보송한 피부로 마무리된다. 촘촘한 마이크로 망은 내용물을 얇고 균일하게 조절해 뭉침 없이 산
뜻하게 발리도록 도와주고, 3D 퍼프는 얼굴의 미세한 굴곡까지 빈틈 없이 해사함을 채운다.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은 쉬어 하이dra 포몰러 기술이 적용되어 부드럽고 얇게 발리면서도 즉각적으
로 시원한 수분감을 극대화 하였다. 쉬어 래스팅 젤 쿠션과 파운데이션에 사용되는 색소는 인체친
화적인 성분으로 코팅해 피부에 거부감 없이 밀착되면서 타고난 듯 자연스러운 생기를 되찾아 준
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쉬어 래스팅 메이크업의 해사함은 오는 6월이면 만날 수 있다. S

The basic purpose of makeup is to highlight a clear and bright skin texture with no visible blemishes and dullness. In addition, long-lasting skin radiance is what everyone is looking for. If you want the natural makeup look, staying with the basics is essential. To meet one's delicate standards, Sulwhasoo presents Sheer Lasting Gel Cushion and Sheer Lasting Foundation, the new makeup line that condenses its original technology. Sheer lasting Gel Cushion has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natural adherence. The 'Melting Gel Texture' instantly reacts to the skin's temperature to help the essence penetrate the skin, while the base leaves a soft and powdery finish. The dense micro mesh dispenses contents thinly and evenly without lumping, while the 3D puff thoroughly fills the skin with radiance, even up to the finest wrinkle. Sheer Hydra Formula technology used in Sheer Lasting Foundation helps applying the content evenly onto the skin while extending cool and moisturized feeling. The pigments used in the Sheer Lasting Gel Cushion and Foundation are coated with a skin-friendly components so they can adhere to the skin smoothly, giving natural-looking vitality. This June, brighten your skin day after day with the radiance of Sheer Lasting makeup.

쉬어 래스팅 젤 쿠션
사 용 법
How to Use
Sheer Lasting Gel Cushion



Step 1

퍼프의 엷지 부분으로 미세그물 망의 가장자리부터
중간부분까지 가볍게 떠내듯이 누른다. 퍼프의
3분의 1만을 채우는 것이 얼굴 한쪽 면을 1회
커버할 수 있는 양이다.
Use the edge of puff to gently press as if scooping
up to take the content from the edge toward
the center of the mesh. About 1/3 of the surface
of puff can cover half of the face for once.

Step 2

볼 가운데에서 피부결 방향을 따라 2~3회 퍼바르며
한쪽 볼 부분을 커버한다. 여러 번 두드릴 수록
매끄럽게 마무리되어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된다.
Spread 2-3 times from the center of one cheek to
following the skin texture for coverage.
Pat several times for a smooth finish and long-
lasting effect.



Step 3

퍼 바른 부분을 감싸듯 두드리면서 매끄러운
피부결을 만들고, 스킨케어 성분을 피부에 공급한다.
앞선 단계의 과정을 2, 3번 부위에 반복해 완성한다.
Pat over covered areas for a smooth finish
and complete absorption of the skin care
components. Repeat steps 2 and 3 on other
areas to finish.





가구의 힘

Ham Do Ha

가 구 디 자 이 너 함 도 하

가구에 사람의 감정을 이입하고, 전통 기법을 스스로 터득해 변용하는 가구 디자이너.
 지난 10여 년의 작업 기간 내내 "유명 브랜드도 아닌 나의 가구를 구입하는 이들의 선택에 늘 감사했다."고 말하는 그는
 자신이 "어제의 함도하가 아니길 늘 경계하면서 산다."고도 했다. "많이 팔려야 작품의 질이 좋아진다."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그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가구를 캔버스 삼아 작업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목조형 가구를 공부하기 전의 전공은 제품 디자인이었어요. 그런데 학부 시절에 아르바이트로 인테리어 회사에 다니며 제가 '제품'보다는 '공간'에 대한 관심이 더 크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다가 뉴욕 유학 시절 공간에 대한 관심이 가구로 옮겨 갔고요. 사람들은 옷을 차려 입고 화장을 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표출하죠. 그런데 작위적으로 표현된 이미지가 아닌 그 사람의 본모습이 궁금해지더군요.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침대에서 잠을 자는지, 거실에는 어떤 가구를 두고 사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던 거죠.

먼저 '함도하 가구'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해주셨으면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구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결과, 가구와 가구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저의 '아트 퍼니처'란 개념입니다. 가구가 실용적으로 기능하지만 문을 닫아놓았을 때는 조형적 아름다움을 발산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는 것이죠. 해서

We wonder why you chose furniture as your canvas. I majored in product design before I started studying wooden furniture. Then I realized that I was more interested in 'spaces' than 'products' upon working for an interior design firm for a part-time job in college. My interests in space moved onto furniture while I was studying in New York. People express themselves by dressing up and wearing makeup. But I wanted to know what they are truly like without those created images. I was curious about the types of beds they slept on, and the pieces of furniture they have in their living rooms.

First of all, please explain to us the concept of 'Ham, Do Ha Furniture.' As I said, my contempl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urniture and people deepened, creating a link between furniture and art, and that is the concept of my 'art furniture.' Furniture has practical functions, but it should be designed to become

지의 가구에는 세 가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미감과 동일한 수준의 쓰임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너무 높지 않은 가격대여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고가라서 구입에 엄두를 못 내는 가구는 가구의 영역을 벗어난 예술품에 국한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늘 엄두에 두는 것이 물결레질만으로도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의자를 옮길 때 자연스럽게 바닥에 끌잖아요. 그래서 제 가구는 차량 도장 방식으로 표면을 마감해 '생활 스크래치'가 덜 나게 합니다.

최근 선보인 두 번의 전시회 콘셉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구호'와의 콜라베이션은 '센티먼트Sentiment'라는 주제로 가구와 조명, 그림 등을 전시하면서 인간의 감정을 가구에 투영시킨 의인화 작업을 시도한 것이었죠. 많은 분들이 살면서 나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음을 깨닫게 되잖아요. 뭐 그런, 누구나 느껴봤을 법한 미묘한 감정을 녹여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Dream of Tradition'이란 제하의 이번 전시는 전통에 대한 저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통은 전승의 대상이긴 하지만 그 방식이 고집이나 아집으로 굳어지며 '권력화'되어선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통이 과거의 시간에 머물지 않게 현재의 시간을 입히자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전통 가구 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표지적인 '머릿장'에 대해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통적으로 문갑을 비롯해 잠자리 머리 위에 두는 모든 가구를 머릿장이라고 부르는데, 저의 머릿장은 기존의 전통 가구와 달리 현대적 문양과 색감이 접목된 겁니다. 각 작품마다 각기 다른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해요. 예컨대 하트 문양을 새긴 작품은 자신을 사랑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식이죠. 또 다른 점은 전통 가구는 문을 열면 마주 보이는 벽면이 일관되게 검정색인 데 반해, 저는 주황색 등 전혀 다른 색을 번갈아 쓰죠. 하지만 바닥면은 항상 흰색을 써요. 보관한 물건이 쉽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죠. 그런가 하면 제 머릿장 세 개를 가로로 연결하면 TV장이 되고, 세로로 쌓아올리면 3단장이 됩니다. 위치의 변화로 용도가 달라지는 재미가 있는 거죠.

artistically beautiful once the doors are closed. Thus, I apply three major principles to my work. First, furniture should be as useful as it is aesthetic. Second, it must not be too pricey. If a piece of furniture is too expensive, it is limited to the realm of artwork, not furniture. Third, I always try to make furniture that is easy to maintain by simply wiping it off with a wet cloth. For instance, we are likely to pull a chair on the floor when we move it. My furniture is finished with painting like cars so it can be more resistant to 'daily scratches.'

Please tell us about the concepts of your two latest exhibitions.

My collaboration with 'KUHO' was titled 'Sentiment,' and we exhibited furniture, lighting, and paintings to personify furniture based on human emotions. Many people realize that there are more of those who dislike me than those who like me as they age. It reflects emotions that anyone has experienced at least once in a lifetime. And the latest exhibition titled 'Dream of Tradition' is my interpretation of tradition. Tradition is something we should support, but its methods should not become a source of 'power' through one's stubbornness. I tried dressing up tradition with contemporary designs so it doesn't stay in the past.

Since we are talking about the 'Traditional Furniture Line,' please tell us about your 'Meoritjang' on the cover.

Traditionally, all kinds of furniture that are placed over your head when you sleep are called Meoritjang, including Mungap. My Meoritjang has adopted modern patterns and colors, unlike conventional traditional furniture. Each piece delivers a unique message. For example, the piece with a pattern of hearts asks you to love it. It is also different because I use orange or other colors on the inside, compared to traditional furniture that is always black on the inside. But I always use white on the bottom so things that are stored inside can be easily found. When three of my Meoritjang are connected horizon-



전통을 존중하면서 현재의 디자인을 입혀 신선한 감각은 물론 쓰임새가 좋은 현대적 작가의 머릿장



디자인과 색감은 현대적 변용을 추구하지만 전통 기법을 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 가구는 전통 가구와 유사한 측면도 있고, 전혀 다른 구석도 있죠. 구조적으로 오동나무 대신 MDF에 무늬목을 입힌다든가, 서랍에 레일을 깐다든가 하는 점이 전통 가구와의 차별점입니다. 다만 옷칠을 한 다거나 대리석에 상감 기법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이돌 가수가 민요를 부르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기법에서 그런 변주를 하는 이유는 빨리 만들되, 똑같은 작품을 만들지 싫다는 제 생각의 반영이죠.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듯, 제 가구들도 각각의 아이덴티티가 부여되길 원하거든요.

다양한 기법의 습득 과정이 궁금하네요.

전수를 받거나 하는 대신 다른 분야의 작가들과 협업을 통해 스스로 터득해갑니다. 1년이면 세 차례 정도 꾸준히 협업을 하는데, 작가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협업이라고 생각해서요.

작업 과정을 SNS로 공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먼저 작가적 나르시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고, 작가의 수고에 대한 이해를 구함으로써 작가와 대중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도 있죠. 대중은 아는 만큼 작품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또 작가만큼 자신의 작품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SNS를 통한 소통에는 내심 주변으로부터 야단을 맞으면서 단단해지고 싶은 의도도 숨어 있어요. 물론 “오늘도 저 열심히 작업하고 있어요.”를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죠.

끝으로 어떤 내일을 살고 싶는지 궁금합니다.

매달 전시 일정이 잡혀 있는 작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연속성을 가져야 작품이 좋아지니까요. 전시가 끝나면 항상 후회가 남잖아요. 그런 후회의 반복을 통해 작가로서의 깊이감이 더해졌으면 싶은 거죠. 감사하게도 내년 3월까지 전시가 잡혀 있으니, 그때까지는 제 소망대로 살 수 있겠네요. S

tally, they function as a TV stand. When piled up vertically, they function as a dresser.

It seems that you are pursuing modern variation with designs and colors, while also borrowing from traditional methods.

My furniture has similarities with traditional furniture, but it is completely different in certain ways. Structurally, I cover MDF with patterned wood instead of Paulownia or use rails for the drawers. Lacquering or inlay on marble can be compared to idol singers singing folk songs. I modify the techniques so that I can save time but also I avoid making the same pieces all over again. I want to give each piece a unique identity, just like each person is unique.

Could you tell us how you learned the different techniques?

I don't learn from others, but I collaborate with other artists to learn new things. I collaborate with other people about three times a year because collaborating is the wisest way for a designer to stay away from mannerism.

We heard that you post pictures of your process on SNS. I do

because I try to stand away from narcissism, and be closer to the public by asking them to acknowledge my efforts. I believe that the public can comprehend and love a work as much as they understand it. Also, no one can explain my work as much as I can. Frankly, I want people's feedback and criticism to make myself try harder.

We would like to know how you want to live your life tomorrow.

I want to have an exhibition scheduled every month. The quality of my work will improve only with continuity. You always regret something after an exhibition. I want to enrich the depth of my work by repeating those regret. Thankfully, I have exhibitions scheduled now until March next year.



함도하 작가는 지난 3월 갤러리다온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해외와 국내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며 스스로 깊이가 더해지는 작가가 되길 바란다.



나무를 배우는 숲

The forest learning about trees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

나무로 만든 테이블과 의자를 만져본다.
나무로 만든 원두 분쇄기도 만져본다. 보통의 사물과
다를 것이 없는데, 유독 더 따스한 기운이 느껴진다.
한 생애가 그대로 새겨진 아름다운 무늬와 곁에
그 온기가 스며 있는 게 아닐까?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도움 주신 곳 인천대공원



인천대공원 내 목재문화체험장인 목연리는 그 건축적 아름다움으로 이미 많은 이의 관심을 모았다. 작년 1월에 완공한 이곳은 제25회 세계건축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었고, 외벽에 설치된 키네틱 아키텍처(움직이는 건축)는 세계 3대 디자인상 중 하나인 '2017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콘셉트 부문 본상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세계적 권위의 수상에 빛나는 목재문화체험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건물의 목적이 그렇듯 나무의 숨결이 가득한 모습이 어렴풋이 그려진다. 그런데 직접 바라본 목연리는 나무보다 돌이 먼저 보인다. 회색 콘크리트가 커다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의 현대적인 감각이 돋보인다. 오른쪽 본관 건물이 큰 삼각을, 그 왼쪽 곁에서 이곳의 대문 역할을 하는 건물도 또 작은 삼각형을 이루고, 이 두 개가 합쳐져 다시 거대한 하나의 삼각형이 된다. 대문과 본관 2층 외부의 빈 공간에 8, 9개 쌓인 'ㅅ'자 나무 패널들이 길게 늘어서 벽을 대신한다. 이 '뚫린 벽'은 주변의 숲과 목연리를 분리

Mogyeon-ri, the Wood Culture Experience Center at Incheon Grand Park, has already attracted many people's attention with its architectural beauty. Completed in January last year, this site has won the 25th World Architecture Award, while the kinetic architecture on the exterior wall has also won the Concept Division of the 2017 Red Dot Design Awards, one of the three major design awards in the world. You actually see rocks before you see wood when you go to Mogyeon-ri. The gray concrete forms a massive, modern triangle, presenting modern sense. The main building to the right forms the larger triangle, while the gate to the left forms a smaller triangle. The two triangles come together to form an even larger triangle. About 8 to 9 'ㅅ'-shaped wooden panels are aligned as walls in the empty space outside the 2nd floor of the gate and the main building. This 'open wall' separates Mogyeon-ri from the surrounding forests, and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관의 또 다른 이름인 목연리는 뿌리가 다른 나무들이 맞닿아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남녀노소가 다양한 형태의 체험으로 나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이곳의 이름으로 잘 어울린다.

하면서도 안에서 보면 바깥 수목원의 푸르른 풍광을 오롯이 끌어안아 펼친다. 바로 목연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앰비언스 월(Ambience Wall)'이다. 우리의 전통 문살을 형상화한 이 나무 스크린은 보는 방향에 따라 모양새가 달라져 볼 때마다 즐거움을 준다. 게다가 이 앰비언스 월의 켜켜이 쌓인 'ㅅ' 모양의 각도는 기둥 움직임에 따라 커지고 작아져, 마치 나비처럼 날갯짓을 한다. 키네틱 아키텍처(Kinetic architecture)다. 비록 이 변신을 평소에는 볼 수 없으나 이곳의 가능성을 더 풍부하게 만든다. 처음 목연리에 대한 인상이 다소 차가운 콘크리트 건물이었다면, 이곳의 숨은 매력은 나무 그 자체다. 건물 곳곳에서 나무의 온기를 보물 찾듯이 발견할 수 있으니 말이다. 회색 콘크리트 벽 자체에도 자세히 보면 나무의 결이 깃들여 있다. 착각이 아니다. 표면에 송판을 찍어 결을 새긴 것이다. 건물에 들어서면 탁 트인 통유리를 통해 주변의 숲이 한눈에 들어온

highlights the green view of the arboretum when viewed from the inside. This is the Ambience Wall that symbolizes Mogyeon-ri. This wooden screen represents the traditional door frame of Korea, and displays different patterns on different angles for your visual pleasure. Also, the layers of 'ㅅ' shapes on the Ambience Wall are enlarged and shrunk according to the movement of the columns, and flutter like the wings of a butterfly. This is kinetic architecture. The first impression of Mogyeon-ri was the rather cold, concrete building, but the hidden charm of this place was wood itself. The gray concrete walls themselves house wooden patterns, if you look closer. The texture of wood has been printed on the surface. When you enter the building, the surrounding forest can be viewed at a glance through the open glass window. The first floor features the carpentry experience center, where anyone, from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grownups,



목연리 가는 길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시청역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인천대공원역에서 내리거나 국철 1호선 주안역에서 인천지하철 2호선으로 환승해 인천대공원역에서 내린다.
또는 국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에서 내려 시내버스 15, 16-1, 30번으로 갈아타고 인천대공원에서 내린다.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네미로 238 (인천대공원 목재문화체험장)
문의 032-440-5850, 5822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월요일 휴무



다. 1층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푹푹딱딱 나무로 무언가를 만드는 목공 체험실이다. 2층으로 오르면 나무 냄새가 진해진다. 천장에 촘촘히 박힌 편백나무 장식물이 내는 향이다. 시야 위로 이 편백나무 조각들이 규칙적으로 줄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연등이나 촛불의 행렬처럼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는 7세 이하의 아동이 부모와 함께 나무를 만져볼 수 있는 느티나무 공방이 있다. 아기 단풍잎처럼 작은 손으로 만드는 아기자기한 나무 소품에 우주만큼 드넓은 상상력이 깃들어 있음은 당연하다. 공방 옆 구름나무 놀이터엔 나무 장난감이 가득하다. 또 편백나무 볼로 만든 풀은 어린이에게 특히 사랑받고 있다. 놀이터의 모래밭에서 소꿉놀이를 하듯 향기 은은한 편백나무 위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사이, 자연과 생명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이 절로 생겨나지 않을까. 목연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나무와 세모다. 건축적으로 반복되는 삼각형이 어떤 의미일까 생각하다가, 세모에 가운데 작대기 하나로 나무를 표현했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그리고 보니 목연리 자체가 또 하나의 커다란 숲이 아닌가. 나무를 만지고 느끼고 소중함을 배우기에 숲보다 나은 곳은 없을 것이다. S

can make anything with wood. Go up to the second floor, the rich scent of wood dominates the ambience. The scent comes from the Hinoki ornaments that are all over the ceiling. The regular alignment of Hinoki fragments above your line of sight reminds you of a parade of lanterns or candles. Here is the saw-leaf zelkova studio where children under 7 can handle wood with their parents. The cute, little wooden accessories made with little hands obviously reflect the world of imagination that is as broad as the Universe. The Cloud Tree Playground nearby the studio is filled with wooden toys. The pool of Hinoki balls is particularly popular among children. They would naturally learn to love and respect nature and life. You can often see wood and triangles at Mogyeon-ri. Contemplating the architectural meaning of repetition of triangles, I suddenly came up with how I drew trees with triangles and bars in the middle when I was a child. Mogyeon-ri itself is a vast forest. No place could fake a forest when it comes to touching and feeling wood and realize the value of trees.

이곳의 상징처럼 보이는 키네틱 앰비언스 월은 수목원의 대문 구실도 한다. 한국의 문살을 형상화한 나무 패널은 새가 되어 날아갈 듯하고, 콘크리트 외벽에는 나무의 결이 오롯이 찍혀 있다.

보고 싶은 마음이 호수만 하다
A longing heart is as deep as a lake

깊고 넓은 호수처럼 정성으로 헤아리는 설화수, 홀리스틱 뷰티의 지혜로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 미명의 빛을 비춰준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서티스톡



크고 작은 수많은 호수를 품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는 천년 고도의 유물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 현대의 마천루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시다.

수많은 호수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품은 곳

하노이(河)는 '물 안의 땅'이라는 이름 그대로 외곽의 홍강이 시내로 굽이 흘러 크고 작은 호수가 300여 개나 있는 호수의 도시다. 그중 하노이 사람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는 곳은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뽐내는 호안끼엠 호수. 현지인들은 느긋하게 산책을 즐기거나 삼삼오오 모여 놀이와 담소를 나누고, 여행자에게는 모든 일정의 중심이 되는 명소다. 가성비 좋은 숙소와 유명한 레스토랑, 술집, 카페 등 각종 상점이 즐비해 여행의 즐거움을 만끽하기에 그만이다. 천년 고도인 하노이의 유물과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건축물이 공존하는 조화로우미를 뽐내고, 밀림 속에서나 자랄 것 같은 울창하고 거대한 가로수 아래에는 그 유명한 베트남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노천 카페가 준비하다. 연유를 듬뿍 넣어 달콤하고 시원한 커피는 쌀국수, 분짜, 반미와 함께 빼놓지 않고 먹어봐야 하는 하노이의 대표적인 맛이다. 살아 있는 박물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왕조 시대부터 형성된 호안끼엠 호수 주변의 구시가지지를 벗어나 남쪽으로 내려가면 고층빌딩과 함께 현대적인 쇼핑센터가 자리잡은 신시가지에서 하노이의 역동적인 면모를 접할 수 있다. 찬란한 천년의 숨결을 바탕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는 하노이의 다양한 매력 덕분에 지루할 틈이 없다.

A place filled with a variety of charms, just like its lakes

As Hanoi literally means 'a land in water,' the Red River around the city meanders to create 300 different lakes. Among those lakes, Hoan Kiem Lake is the most beloved lake due to its serene atmosphere. Local people leisurely take a walk or gather in small groups to play games or chat. To travelers, it is a landmark that is always on top of their itinerary. Affordable places to stay, renowned restaurants, bars, cafés, and shops, all of these attractions help you enjoy discovering countless hidden treasures. The relics of Hanoi, a capital city with a history spanning a thousand years, harmonize well with the buildings from the French colonial period. Beneath the luxurious, jungle-like trees along the streets are streetside cafés where you can enjoy the famous Vietnamese coffee. The iced coffee with sweetened milk is one of the major culinary attractions of Hanoi, along with rice noodles, Bun Cha, and Banh Mi (Vietnamese sandwich). If you head south from the Old Town around the Hoan Kiem Lake, there is so called 'a living museum' that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reign of the dynasties, At the downtown, It is filled with high-rise buildings and modern shopping centers, where you can experience the dynamic side of Hanoi. You will never get bored with the many hidden charms of Hanoi, a city that has been recording remarkable economic growth based on the breadth of a thousand years of prosperity.



하노이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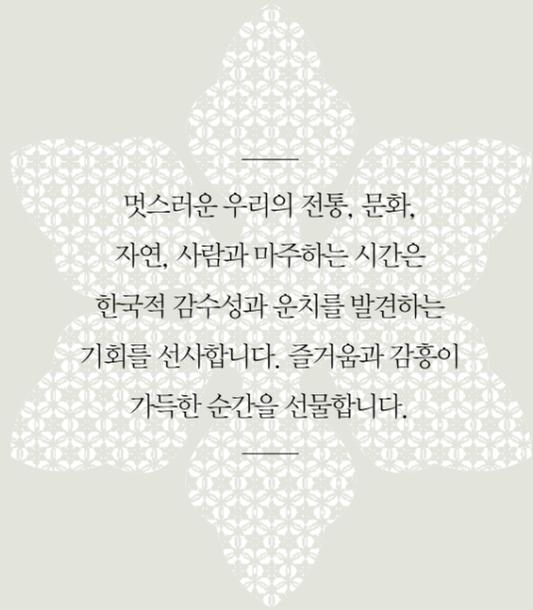
설화수, 하노이 미美的 기준이 되다

베트남에서 설화수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도시는 호치민이었지만 2017년 9월, 하노이의 대표적인 쇼핑센터인 빈컴바찌우 매장이 문을 열면서 설화수는 하노이에서도 미美的 벗이 되고 있다. 고온 다습한 기후와 오토바이를 타며 매연에 자극받은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주는 솔루션을 선보이는 설화수는 하노이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베트남 최초로 페이스 트리트먼트의 유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품격 높은 설화수의 존재감을 알리고, 진정성 있는 설화수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다. 빈컴바찌우 매장은 하노이 중심가에 위치해 쉽게 찾을 수 있고, 넓은 공간으로 꾸며 방문객들이 브랜드를 경험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여유롭고 편안하게 설화수의 헤리티지에 공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다양한 이벤트로 친근함을 더하며 하노이에 새로운 미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피부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정한 아름다움의 길을 설화수가 안내한다. S

하노이에서 처음 선보이는 설화수 빈컴바찌우 매장은 고객들이 편안하고 여유롭게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넓은 공간 디자인과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현지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다.

Sulwhasoo becomes the standard of beauty in Hanoi

Ho Chi Minh used to be the only city in Vietnam where you could find Sulwhasoo. However, in September 2017, Sulwhasoo opened its store in Vincom Center, Ba Trieu, one of the largest shopping centers in Hanoi, and became a landmark of beauty in Hanoi. Sulwhasoo presents solutions for the skin that is irritated by the hot and humid climate and the smog emitted by motorcycles, capturing the hearts of customers in Hanoi. Starting from last January, Sulwhasoo provides its first facial treatment services in Vietnam to emphasize the dignity of Sulwhasoo, and shares its authentic concept of beauty. Vincom Center, Ba Trieu is easy to find as it is placed in the center of Hanoi, and the Sulwhasoo store is spacious enough for visitors to experience the brand for as much as they want. Such a welcoming, comfortable setting helps visitors feel Sulwhasoo's unique heritage while various events have added even more inviting for customers to suggest the new standard of beauty in Hanoi. Sulwhasoo is guiding you to the path of true beauty from deep within.



멋스러운 우리의 전통, 문화,
자연, 사람과 마주하는 시간은
한국적 감수성과 운치를 발견하는
기회를 선사합니다. 즐거움과 감흥이
가득한 순간을 선물합니다.

가
미
감

A green leaf icon is positioned to the right of the top character '가'.



온갖 좋은 것들의 통로, 이지선이라는 ‘문’
The path to everything good,
the ‘door’ called Lee Ji Sun

Lee Ji Seon

이 지 선

‘컨셉코리아 in China(Shanghai) F/W 2018’ 제이어퍼스트로피의 쇼는 ‘문’을 주제로 펼쳐졌다.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동을 의미하는 문. 문 너머 있는 것에 대한 기대와 호기심. 그것이 주는 설렘과 즐거움을 문을 통해 들어오는 변형된 빛의 형태로 표현했다. 컬렉션은 아름다웠다. 문득 이지선의 문이 궁금해졌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지선이 드나드는 문은 없었다. 그는 그 자체로 문이었다. 수많은 좋은 것들이 이지선을 통해 드나들었다. 좋은 인연, 좋은 시간, 좋은 생각, 좋은 시선, 좋은 바람 같은 좋은 에너지들이 끊임없이 오고 갔다.

글 이재영 사진 전제호

창작의 황홀

이지선 디자이너의 얼굴은 낮익다. 바로 그 2007년 미스코리아 진 이지선이기 때문이다. 유학 시절 우연한 기회로 미스코리아에 출전했다. 세련된 이목구비, 우아한 태도, 영민한 눈빛에 대중들은 당장 주목했다. 그러나 이지선은 세간의 관심에 휘둘리지 않았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나의 시선으로 스스로를 바라봤다. 자유로웠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다.

“많은 관심을 받고,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것들이 성장의 기회가 됐어요. 나라는 사람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였죠. 저는 어려서부터 디자이너를 꿈꿨어요. 길고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꼭 하고 싶은 일이었죠.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차분히 해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했어요. 그 판단에 지금 만족해요. 다시 태어나도 디자이너를 할 거예요. 무언가를 만들어냈을 때만큼 행복할 때가 없거든요.” 패션은 여성들에게, 아니 인류에게 중요한 요소다. 옷 한 벌에 기분이 나아지고,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들에게 잘 만들어진 좋은 옷을 선물하는 기분, 고객들이 자신의 옷을 입고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중요한 일을 한다고 느낀다.

“아이에게 바라는 단 한 가지도 그렇고, 제가 살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 메인 출입구에 프랭크 스텔라의 작품을 놓았어요. 굉장히 유니크하고 역동적인 그림이에요. 출퇴근할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에너지를 얻어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The Fantasy of Creation

Designer Lee Ji Sun is familiar to us because she was crowned Miss Korea in 2007. She entered the beauty pageant by chance while studying abroad. Her sophisticated looks, graceful attitude, and bright eyes instantly attracted attention. However, she was not agitated by the attention. She looked at herself from her perspective, not from others' perspectives. She was free. She chose what she wanted to do, not what others told her to do. “I got a lot of attention and experienced a lot. It was a chance to examine myself. I was able to think deeply about who I am. I have always wanted to be a designer. It was long, tedious, and hard, but I really wanted to do it. So I decided that I should stick to it regardless of other temptations. Now I'm satisfied with that decision. If I were born again, I would still choose to be a designer. Nothing makes me happier than creating something.”

Fashion is an important element for women, or for mankind in general. A piece of outfit can decide how you feel and how you dress up decides how you behave. She finds that what she does is truly important every time she feels the pleasure of giving the present of a well-made outfit and sees people happy in her garments. “Being a person who gives off ‘good vibes’ is the only thing I want for my child and what I think is most valuable in life. I placed a piece by Frank Stella at the main foyer of my house. It's very unique and dynamic. It's my source of energy every morning and evening. It's not just for me, but for everyone I encounter.”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좋은 것이 만들어진다

프랭크 스텔라의 그림뿐 아니라, 그는 여러 곳에서 좋은 기운을 듬뿍 받는다. 새로운 것을 밖으로 내놓는 직업을 가진 이상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자신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요즘 조용한 국내 여행을 자주 해요. 얼마 전에 경주를 거쳐 보성 녹차밭 다녀왔어요. 보성은 처음 이었는데 입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길을 내어주고, 그 길을 따라 가지런히 펼쳐진 녹차밭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좋은 공기를 마시며 조용한 차밭을 한참 걸었어요. 자연도 그렇지만 거리나 예술이나 장르 불문 가리지 않고 영감을 얻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 내 안에 담은 양질의 감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흡수하는 이유는 간명하다. 대중의 니즈와 브랜드 감성을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서다. 예술로서의 패션이 아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자칫하다가 한쪽으로 기울기 쉽다. 이 지선 디자이너는 이 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래서인지 제이어퍼스트로피의 컬렉션을 보면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 나무의 느낌이다. 단정하고 선명하며 산뜻하다. 어떤 색깔의 꽃이 피더라도 다 어울릴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균형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얼마 전 키즈 라인 '리틀스텔라'를 세상에 선보였다. 이 또한 고객의 니즈와 자신의 감성이 조화를 이룬 결과다.

“딸 태희가 자라면서 제 스스로 고객의 입장에서 니즈가 생겼어요. 질이 좋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

Accept Good Things to Make Good Things

It is not just from Frank Stella's painting where she gets positive energy. There are many other sources of good energy. She believes that it is her job to accept good things since it is her job to present something new. "I often travel to quiet rural towns these days. I visited Gyeongju and Boseong Green Tea Field a while ago. It was my first time in Boseong and I just stood there by the entrance for quite a long time. The enormous tall trees paved the way and the neatly aligned green tea fields along the way were so beautiful. I breathed in good air and took enough time to walk around the quiet tea field. I get my inspirations from nature, streets, art, and any other genres. What is most important is sharing the high quality of sentiments I have inside with others."

There is a simple reason why she absorbs all the positive things. It is to express the public needs and the brand's sentiments simultaneously. If you do fashion for business, not art, you can easily lose balance. Lee makes ceaseless efforts to maintain balance. That is why the collections of J Apostrophe feel like tall, healthy trees growing in a favorable environment. As a result of her efforts for balance, she presented to the world the kids line 'Little Stella'. This is another outcome of harmony between customer needs and her own sentiments. "As my daughter, Tae Hee, grows up, I have had some needs as a customer myself. I always had difficulty with shopping for her because high-quality kids' outfits were too expensive or the trendy SPA brands that carry a wide lineup of sizes were not very good quality-wise. I thought it would

고, 트렌디하고 다양한 사이즈가 있는 스파 브랜드는 질이 그리 좋지 않아 선택할 때마다 애를 먹었어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부담없이 예쁘고 질 좋은 옷을 입히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고객이 될 주변 엄마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다들 같은 생각이었어요. 바로 실행에 옮겨서 '별 태' 자에 '빛날 희' 자를 쓰는 딸의 이름을 따서 '리틀스텔라'라는 키즈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반응이 좋아요." '리틀스텔라'는 반응이 좋은 정도가 아니다. 런칭 1년 만에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랑을 받으며 계속해서 확장 중이다. '리틀스텔라'의 최초이자 최고 고객인 딸 태희는 일하는 엄마의 모습에 응원을 아끼지 않는다. 자신과 함께할 시간이 부족해도 이해해주는 편이다. 바쁜 엄마 원망 않고 잘 자라주는 모습이 그저 고맙다. 아이의 그런 씩씩함 또한 엄마에게 좋은 에너지로 돌아온다.

"가족과 비즈니스의 균형을 잘 가지고 가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의 헌신과 사랑으로 주변에 많은 영감과 사랑을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가꾼 삶이 멋진 디자인으로 발현되어 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도 좋은 삶을 선물하는 디자이너였으면 해요."

이지선이라는 문을 연다. 환한 빛이 쏟아진다. 고요한 자연과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이 조화롭게 우리를 감싼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그는 자신의 좋은 에너지를 쏟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그의 문을 빠져나오면 어느새 내가 문이 되어 있다. 그 문으로 분명 좋은 에너지가 오고 갈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이지선을 자주 열어보게 될 것 같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S

be nice to have affordable, pretty, and quality outfits for growing children. I talked to other mothers who would be my customers and they all had the same ideas. I took an action right away and launched a kids' brand named 'Little Stella' after my daughter's name, which means 'bright star.' The line is getting some good reviews I'm glad."

'Little Stella' is growing rapidly just a year after launching. It's widely beloved on both online and offline platforms and is continuously expanding. Her daughter, Tae Hee, who is the first and best customer of 'Little Stella,' is Lee's best supporter. She kindly understands it even though she can't spend much time with her mom. Lee is thankful that her daughter is growing up healthy and happy without putting blame on her busy mother. Her daughter's positivity also brings good energy to her. "I want to maintain balance between family and business. I hope that my sacrifice and love can bring many inspirations and love to the people around me. I want to be a designer whose life is reflected on her great designs to give the gift of good life to those who wear them." You open the door called Lee Ji Sun. Bright light shines through. We can enter her world freely and without any difficulties. Her world is inside. It's a world created by someone who has an insight for good things. She pours her positive energy to constantly create something new. When you come out from that door, you become a door yourself. That door will let good energy in and out for sure. To help ensure better lives, we would probably open Lee Ji Sun much more often.

헤어&메이크업 엔플로에(02-517-9111) 스타일리스트 유민희 도움 주신 곳 제이어퍼스트로피(02-541-9064), 알도(02-3447-7701), 자라(02-512-0728), 짐블랑(www.jaimeblanc.com)



1 골드 컬러 유리 컨테이너 화병은 산탈서울. 2 화려한 패턴의 블랙 자개장은 아리자안. 3 벽에 걸린 타원형 거울은 모두 몬타나 by 에스하우츠. 4 오렌지 컬러 아크릴 테두리의 아치형 탁상 거울은 엔소사이어티. 5 베이지 컬러 옷칠 불은 허명욱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6 진한 베이지색 육각 화병은 위승용도자기. 7 분홍색 스톤은 무니토. 8 달항아리 모양의 'Pray for you' 도판은 강준영 작가 by 이도아틀리에. 9 민트 컬러 벨벳 암체어는 WITTMANN by 보에. 10 코퍼로 된 기둥으로 포인트를 준 우드 사이드테이블은 챔터원. 11 손잡이가 달린 카키 컬러 머그컵은 STILL LIFE by 챔터원. 12 육각 사다리꼴 형태의 골드 프레임 거울은 엔소사이어티.

거울의 영롱한 마법

잔잔한 연못에 자신을 비추는 것에서 시작된 인류의 거울은 오랜 시간 동안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다. 현대에 와서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활필수품이 되었다가 이제 공간을 완성하는 화룡점정으로 거듭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디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 연한 보라색 페인트는 'DE5954'로 덴에드워드 눈현철 그레이 컬러 패턴의 바닥은 구정마루의 '아트맥시앙'.



유려한 거울 한 점이면 그만이다

애써 꾸미고 채우지 않아도 된다. 이토록 멋진 거울 덕분에 한 폭의 산수화가 따로 없다.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른 그림이 담기고,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한 빛을 머금으며 단 한순간도 같은 그림이 아닌 철나의 작품이 된다. 이러니 액자 대신 거울 한 점으로도 충분하다.



왼쪽 페이지 1 카키색 어거스틴 셸링 램프는 지엘드. 2 아이보리색 화병은 모두 지승민의 공기. 3 우드 받침의 테이블 거울은 브레이크타임킹. 4 연보라색 수납장은 몬타나 제품으로 에스하우츠 판매. 5 산 모양의 '참참산중' 거울은 윤이서 작가 by 갤러리플래닛. 6 자개로 장식한 사각함은 하대용 작가 by 해브빈서울. 7 아이보리색 캔들 홀더는 마요. 8 연화문매병 캔들은 NOO by 해브빈서울. 9 블랙 'Adam stool'은 FRAMA by 덴스크. **오른쪽 페이지** 1 눈 모양의 거울은 산탈서울. 2 골드 프레임 거울은 하우스오브콜렉션스. 3 주전자 그림은 시문작가. 4 기하학 도형으로 포인트를 준 아트 거울은 엔소사이어터. 5 보라색 날개 불은 이정미 작가 by 조은숙갤러리. 6 베이지색 핑크색의 화병은 모두 김나임 작가 by 이도아뜰리에. 7 민트색 긴 화병은 장미네 작가. 8 베이지색 수목문 반닫이는 아리자안.

* 베이지 칠한 연문홍색 페인트는 DEB044로 단에드워드 노한진

왼쪽 페이지 | 3단 서방탁자는 김현수 작가 작품. 2 백유 달항아리는 이택수 작가 by 조은숙 갤러리. 3 검은색 화병은 지승민의 공기. 4 굽접시는 최예원 작가 작품. 5 보라색 패턴의 원형 거울은 크래프트콤바인. 6 가죽끈이 달린 원형 육각 거울은 모두 아틀리에블랑. 7 황동 손거울은 Ferm Living by 짐블랑. 8 원 모양이 달린 황동 캔들 홀더는 FRAMA by 짐블랑. 9 수목 한지 노트는 김현주스튜디오 by 해브비서울. 10 인센스 유리 홀더는 크래프트콤바인. 11 블랙 촛대는 H&M. 12 호리병 형태의 백색 화병은 스튜디오 모네프. 13 콤팩트한 사이즈의 블랙 콘솔 테이블은 L&Z by 챔터원. 14 그레이 체어는 Galvanitas by 챔터원.

오른쪽 페이지 | 너도밤나무로 만든 암체어는 스튜디오 모네프. 2 프레임이 없는 스탠딩 거울은 MOEBE by 챔터원. 3 타원 모양 거울이 달린 캔들 홀더는 Ferm Living by 짐블랑. 4 정사각형 옷칠 거울은 여비진 옷칠 스튜디오. 5 파스텔 톤 그라데이션 포인트의 원형 거울은 크래프트콤바인. 6 나무 프레임의 삼각형 거울은 푸에브코 by 짐블랑. 7 포도문 보석함은 박만순 작가 by KODF갤러리숍. 8 레진과 금속으로 제작한 화병은 김유정 작가 작품. 9 선반이 달린 그레이 벽거울은 브레이크타입킷.



* 벽에 걸린 삼각형 프레임은 'DES026'로 디에트워드 디자인

어디서나 조화로운 팔방미인

화장대나 욕실, 옷방 등 거울을 꼭 필요한 곳에만 둔다는 생각은 접어두자. 디자인과 크기가 다양해지고, 독특한 소재를 만난 거울은 멋들어진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거듭나 허전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는다. 서재, 아이 방, 거실 벽면이나 주방 등 어떤 공간이라도 빛이 닿게 하는 마법을 부린다.



돌과 흙, 바람과 오름을 소담하게 담다

포도송이처럼 몽글몽글 모여 있는 지붕에 젖어드는 저녁 빛이 오름으로 이어진다.
 돌담과 너른 마당을 끼고 있는 포도호텔은 마치 자연의 일부인 듯 오름과 하나의 프레임에 담긴다.
 은은한 온기를 품은 아늑한 풍경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자친 마음을 스르르 가뭇없이 사라지게 한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자연에 순응하는 건축이 전하는 감동

온화한 곡선과 소박하게 낮은 건물은 자연스럽게 제주 자연의 일부가 된다.
 건축가 이타미 준은 제주가 품은 소재들을 건축에 반영해 자연과 건축의 경계를 지웠다.
 오름과 초가지붕에서 영감을 얻은 지붕과 그 아래로는 길을 따라 집이 이어진 마을처럼 객실이 구성된다.
 한옥처럼 방과 마당의 구분은 문 하나가 전부라 문을 열면 언제든 제주의 풍경이 외락 안겨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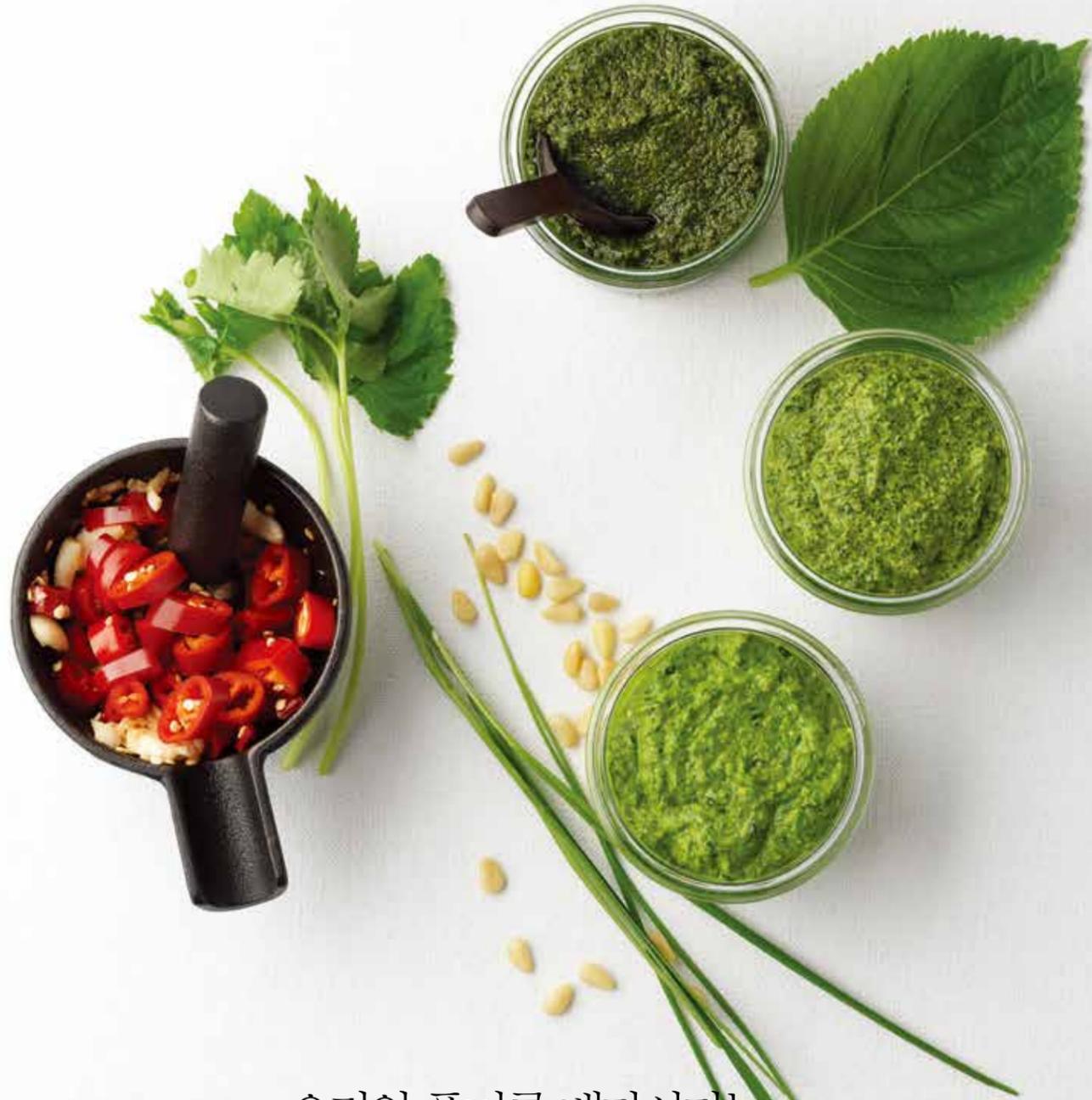


자연의 근본을 오롯하게 뿌리다

하늘과 동근 지붕이 맞닿아 유려한 선을 그려내듯 윤조에센스미스트도 자음단™을 담아낸 이층상의 에센스가 층을 이뤄 빛 고운 선을 만든다. 설화수의 헤리티지 원료인 자음단™의 영양 성분을 에센셜 오일과 에센스 워터에 담은 윤조에센스미스트. 좋은 것을 가까이 두고 오래 쓰고 싶은 마음을 읽은 듯하다. 미세먼자와 자외선 건조한 환경으로 피부가 칙칙해지고 윤기를 잃어가고 있는 요즘이라 반가울 수밖에. 자음단™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 프렉스트레스 프로세스™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적용한 최적의 영양 성분이 미세하게 골고루 분사되어 건조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키고 피부 균형을 맞춰 윤기와 생기가 돈다. 피부 본연의 자생력을 높여 근본부터 좋은 피부를 위한 설화수의 새로운 지혜가 돋보인다. 윤조에센스미스트 110ml, 50ml(신제품 6월 출시)

젊음이 꽃피우니 어찌 사랑하지 않겠는가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기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고, 세월이 흘러도 뜻을 굽히지 않고 새 꽃을 피워내는 언제나 청춘이다. 설화수는 매화의 꽃봉오리에서 얻은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로 젊고 매끄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설린 라인을 선보인다. 부드러운 탄력감이 특징인 설린크림은 무서운 기세로 공격하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탄력있는 피부로 가꿔준다. 건조한 피부에 가볍고 촉촉하게 스미는 설린수는 생기를 부여하고, 설린에센스는 매화의 항산화 성분이 촘촘히 채워져 피부를 맑고 건강하게 개선해준다. 설린수 150ml, 설린에센스 50ml, 설린크림 50ml



요리의 풍미를 배가시키는 빛 고운 페스토 요리

올리브 오일과 치즈, 잣을 함께 넣어 만든 이탈리아 전통 소스인 페스토Pesto는 바질로 만든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하지만 동네 시장이나 마트에 가면 바질만큼 향기 좋고 맛 좋은 초록빛 채소들이 참 많다. 우리 채소들로 만든 페스토는 여러 요리에 맛과 색감을 살리는 메인 소스로 사용할 수 있다. 새끼손가락으로 콧 찍어 먹으면 입안 가득 향긋한 초록 내음과 고소한 맛으로 탄성이 절로 나온다.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고소한 깻잎 페스토와 어우러진 오픈 샌드위치

재료

깻잎 100g, 올리브 오일 1/4컵, 마늘 2톨, 잣 40톨 정도, 샌드위치용 빵

만드는 법

1 깻잎은 깨끗이 씻어 꼭지를 떼고,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2 잣은 고소한 풍미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름 없이 달군 팬에 볶는다. 3 볼에 4~5cm 길이로 자른 깻잎, 볶은 잣, 올리브 오일, 마늘을 넣고 핸드 블렌더로 걸죽한 상태가 될 때까지 갈아 깻잎 페스토를 만든다. 4 샌드위치용 빵 위에 완성된 깻잎 페스토를 바른 후 취향에 따라 안초비, 채소, 치즈 등을 올린다.



만두피 미니 피자 위에
참나물 페스토

재료

시중에 파는 만두피 큰 사이즈 6장, 참나물 100g, 마늘 2톨, 잣 40톨 정도, 올리브 오일 1/4컵, 모차렐라 치즈

만드는 법

1 깨끗이 손질한 후 살짝 데친 참나물과 볶은 잣, 마늘, 올리브 오일을 함께 넣고 핸드 블렌더로 갈아 참나물 페스토를 만든다. 2 만두피는 따뜻한 물에 살짝 데친 후 페이퍼를 깐 오븐 트레이 위에 편편하게 펴고, 앞뒤로 올리브 오일을 바른다. 3 만두피 한 면 위에 참나물 페스토를 두툼하게 바르고 모차렐라 치즈를 적당량 뿌린 뒤 200℃ 온도의 오븐에서 5분 정도 익힌다.



깻잎

'식탁 위의 명약'이라 불릴 정도로 영양이 풍부한 깻잎은 향긋한 내음으로 여러 요리에서 화룡점정의 재료로 사용된다. 이런 깻잎으로 만든 페스토는 그 향과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샌드위치 스프레드로 인기 만점이다.

참나물

채소 중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참나물은 잎이 부드러워 페스토 만들기에 아주 좋은 재료다. 미나리과인 만큼 은은한 특유의 향을 가지고 있어 향을 만끽할 수 있는 쇼트 파스타 소스 또는 닭가슴살 요리 소스로도 제격이다.

부추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부추는 페스토로 만들면 또 다른 매력을 발산한다. 올리브 오일과 치즈의 느끼함을 단번에 잡아주는 부추는 리소토, 오일 파스타 등과 찰떡 궁합이다.

홍고추

비타민 C가 풍부하고 뇌로 통증을 전달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캡사이신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홍고추 페스토는 매운맛이 강한 만큼 생선구이의 소스나 푸른 채소들과 가볍게 섞은 샐러드 소스로 훌륭하다.

매콤 짭조름한 부추 페스토로 만든

초록 리소토

재료

쌀 1컵, 닭가슴살 한 덩어리, 닭 육수 1컵, 부추 100g, 양파 1/4개, 올리브 오일 1/4컵, 잣 40톨 정도, 마늘 2톨, 다진 마늘 1큰술

만드는 법

1 깨끗이 손질해 자른 부추와 볶은 잣, 마늘, 올리브 오일을 함께 넣고 핸드 블렌더로 갈아 부추 페스토를 만든다. 2 올리브 오일(또는 버터)을 두른 팬에 잘게 썬 양파와 다진 마늘을 넣고 볶다가 쌀을 넣어 함께 볶는다. 3 뜨거운 닭 육수 1컵을 조금씩 부어가며 늘어붙지 않도록 저으면서 끓인다. 4 미리 삶아둔 닭가슴살을 잘게 썰어 팬에 넣고 센 불에서 저으며, 쌀이 반 정도 투명해졌을 때 불을 끄고 부추 페스토 2큰술을 넣고 잘 섞는다. 5 취향에 따라 파르메산 치즈를 뿌린다.



빛깔 고운 홍고추 페스토로 무친

샐러드

재료

홍고추 2개, 마늘 2톨, 액젓 2큰술, 샐러드용 채소, 참기름 1작은술

만드는 법

1 깨끗이 씻은 홍고추는 씨를 빼지 않고 블렌더에 넣어준다. 여기에 마늘, 액젓을 함께 넣고 간다. 2 다른 페스토에 비해 걸죽함이 덜하기에 산뜻한 샐러드용 소스로 최고. 완성된 홍고추 페스토에 참기름을 섞어 고소함을 배가시킨 후 깨끗이 손질한 샐러드용 채소와 가볍게 버무린다.



예술의 도시, 그 안에서 유명하다

Wien & Abu Dhabi

빈 & 아부다비

높고 푸른 하늘, 아름다운 꽃향기, 반갑게 다가오는 고양이, 여행자를 위한 시려 깊은 친절...
 낯선 여행지에서 마음을 따스하게 하는 여러 가지를 떠올려본다. 이 리스트는 무한대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 예술이 주는 벅찬 감동은 절대 빼놓을 수 없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셔터스톡



지식으로만 알았던 거장의 예술 작품이 빈에서는 일상이 된다. 놀라운 예술가와 천재들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에서 예술은 가장 큰 테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은 '예술의 도시'라는 수식을 대표하는 도시다. 클래식한 음악과 미술, 건축의 아름다운 여운이 온 도시에 감돈다. 보석과도 같은 예술이 깃든 공연장과 미술관이 곳곳에 빛나고 있어, 평범한 여행자는 이내 가슴이 벅차오르고 만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수세기에 걸쳐 수집한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빈 미술관 박물관에서는 길을 잃어도 행복하다. 1981년 개관한 이곳은 독일의 건축가 G. 쾰퍼의 건축으로 지어진 돔 모양 지붕의 거대한 석조 건물로, 빈 자연사 박물관 바로 맞은편에 자리한다. 파리의 루브르, 마드리드의 프라도와 더불어 세계 3대 미술관으로 불리는 만큼 서양 미술사의 획을 그은 명작이 가득하다. 한편 바로크풍 정원과 커다란 연못이 매혹하는 벨베데레(Belvedere) 궁전에서는 클림트의 대표작 <키스>를 직접 마주할 수 있다. 황금빛이 찬란한 그 로맨틱한 장면은, 이미 익숙하지만 다시 새로운 감동을 준다. 베토벤이 생애 대부분을 보냈고 슈베르트가 태어났으며, 모차르트의 전성기를 고스란히 목격하기도 한, '음악의 도시' 빈 역시 아름답다. 그 영광을 증명하듯 빈 시내로의 산책은 위대한 음악가들의 기념관과 기념상을 자주 만나면서 주춤거린다. 빈 시내에서 135년간 자리를 지켜온 '카페 스페르 Café Sperl'은 영화 <비포 선라이즈>에서 셸린이 제시에게 고백하던 그곳이기도 하다. 예술에 취한 몸과 마음을 잠시 쉬기에도 충분하다.

Vienna, the capital of Austria, is renowned as the 'city of arts.' The entire city is filled with the beautiful spirit of classical music, fine art, and architecture. There are performing centers and art museums relishing the gems of art that are shining throughout the city, overwhelming the ordinary traveler. You will not be able to stop smiling even if you lose your way in the Vienna Art Museum, where you can enjoy the centuries-old collections of the Habsburg Haus. Established in 1981, this is a massive stone building with a dome roof built by German architect G. Semper. Named as one of the three major art museums in the world along with the Louvre in Paris and Prado Art Museum in Madrid, there are full of monumental masterpieces of art history. You can come face-to-face with Klimp's famous <Kiss> at the Palaces of Belvedere, enticing you with a Baroque garden and a large pond. The romantic, golden scene feels completely new and impressive although you are already familiar with it. Vienna is likewise known as a 'city of music,' as it is where Beethoven spent most of his life, where Schubert was born, and where Mozart's glory flourished. Its golden eras are proven by the memorials and the status of the greatest musicians in history in Downtown Vienna.

빈이 클래식한 예술의 성지라면, 아부다비는 이제 막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한 예술의 오아시스다. 아부다비는 일곱 개의 토호국 연합으로 이루어진 UAE의 젊은 도시다. 중동을 대표하는 예술의 도시이면서 양성평등의 문화가 정착되어 자유와 창의가 넘친다. 바로 면해 있는 페르시아만에는 200여 개의 아름다운 섬들이 아부다비를 아우른다. 지난 2017년 11월, 아부다비 인근의 사디아트섬에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의 분관인 루브르 아부다비가 개관했다. 루브르 아부다비는 프랑스 루브르의 첫 번째 분관이자 중동에 위치한 최초의 세계적인 박물관이다. 프랑스 건축가 장 누벨의 작품이기도 한 이 몽환적인 공간은 거대한 돔 모양의 지붕에 뚫린 7850개의 패널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우주적인 공간감과 시간의 흐름을 몸소 체험하고 깨닫게 만든다. 그 안에서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에 이르는, 예술의 타임라인이 경이롭게 펼쳐진다. 루브르 아부다비를 시작으로 아부다비는 국제적인 문화 예술 허브로 새롭게 거듭나길 꿈꾸고 있다.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 7배 규모의 구겐하임 아부다비, 자이드 국립 박물관과 해양 박물관 등 랜드마크로도 탁월한 건축물들의 개관이 코앞이다. 생겨난 지 반세기가 넘지 않은 이 황금빛 사막 도시 안에는 새롭게 지은 건물들이 가득하다. 그야말로 현대 건축의 각축장이라 할 수 있다. 마천루를 이루는 초현대식 건물과 순백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셰이크 자이드 모스크가 만드는 기묘한 조화 역시, 그야말로 예술적이다.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 예술의 의미가 숨결처럼 가까이에 있다. S

While Vienna is considered a sacred land of classical art, Abu Dhabi is an art oasis that has just begun to rise. Abu Dhabi is a young city in the United Arab Emirates, which consists of seven emirates. Last November 2017, Saadiyat Island near Abu Dhabi opened Louvre Abu Dhabi, a branch of the Louvre in France. Louvre Abu Dhabi is Louvre's first branch, and is the first world-class museum located in the Middle East. This fantastic space, which was created by French architect Jean Nouvel, allows you to experience and realize universal space and the flow of time with light coming through 7,850 panels on the massive dome-shaped roof. The timeline of art, from the beginning of mankind through today, is presented so marvelously. Starting with Louvre Abu Dhabi, Abu Dhabi is dreaming to turn over as a global hub of culture and arts. Guggenheim Abu Dhabi, which is seven times more spectacular than the Guggenheim Museum in New York, the Zayed National Museum, and the Oceanographic Museum are waiting to debut in splendid structures that will also serve as new landmarks. This golden desert city, which has been established less than half a century old, is filled with newly constructed buildings. It is the arena of modern architecture. The bizarre harmony of super-modern skyscrapers and the pure-white beauty of the Sheikh Zayed Mosque is truly a piece of art. The meaning of art that transcends time and culture is as close to you as a breath of fresh air.

국제적인 예술 도시로 떠오르고 있는 아부다비에는 중동 특유의 고전적인 모스크와 초현대식 미래 도시가 공존한다.
루브르 아부다비의 실험적인 건축 모형 안에서 세기의 걸작을 체험하는 것도 흥미롭다.



무릉도원의 행복을 선물하는 다정한 봄

선물은 받을 때뿐만 아니라 선물을 고르고 건넬 때도 기쁨을 선사한다. 소중한 이의 행복을 소망하는 마음까지 담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선물이 있을까? 평화와 행복을 바라는 의미가 깃든 설화수 무릉도원 리미티드 컬렉션은 서로를 아끼는 아름다운 마음까지 충만하게 담았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문지윤(뷰로 드 플로리아) 어시스턴트 황남주, 장세희



윤조에센스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한방 원료를 엄선해 18시간 동안 정성으로 완성한 자음단™ 성분이 미세먼지와
봄벌레 자극받은 피부에 윤기를 부여하는 첫 단계 에센스. 발그레하게 빛 고운
복숭아처럼 건강한 생기가 도는 피부로 가꿔주고, 뒤에 바르는 제품의 효과를
높여준다. 윤조에센스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은 120ml 대용량으로 선보인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세안 후 첫 단계에 사용해 다음 단계 제품의 효과를
높여준다. 손바닥에 2~3회 정도 펴 펴한 후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발라준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 흡수시킨다.



퍼펙팅쿠션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 SPF50+/PA+++ (15, 21, 23호)
Perfecting Cushion EX

보습력이 탁월한 치마버섯 유래 성분으로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를
오래도록 유지해주는 윤기 쿠션. 선풍수만의 '슬림핏 하이커버리지'
포몰러로 가볍게 발리면서 촘촘하게 커버되어 결점 없이 매끈한
피부를 선사한다. **How to Use** 파운데이션 사용 단계에서 퍼프를
이용하여 적당량을 취한 후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이 바른다.
결점이 있는 부위는 내용물을 덧발라 완벽하게 커버한다.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
SPF50+/PA+++ (13, 21, 23호)

Perfecting Cushion Brightening

피부를 탄탄하게 밝혀주고 맑게 정화시켜 브라이트닝 효과를
선사하는 쿠션. 목련 추출물과 다각도로 빛을 반사시키는 효과를
지닌 진주모 콤플렉스가 은종일 맑은 안색을 지켜준다.

How to Use 퍼프를 이용하여 1~2회 정도 취한 후 얼굴 전체에
두드리듯 바른다. * 해외, 면세 한정 수량 판매



메이크업 멀티키트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
Makeup Multi Kit

공기같이 미세한 입자로 모공 결을 정리해주는 파우더 포 쿠션과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도원의 분홍빛을 담은 세 가지 색상의 블러셔가 함께 구성된 멀티팔레트. 블러셔는 세 가지 봄 한정 색상을 하나에 담아 농담 조절이 가능하고 하이라이터로도 활용할 수 있어 내추럴 메이크업에서 은은한 꽃처럼 피어난다. **How to Use** 좌측의 파우더 포 쿠션은 파우더 사용 단계에서 브러시를 이용하여 적당량을 취한 후 얼굴 전체를 살짝 쓸어내듯 터치해준다. 블러셔는 브러시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블렌딩하여 볼뼈의 바깥쪽 부분부터 얼굴 안쪽 방향으로 점점 흐리게 쓸어내듯 2~3회 터치한다. 진한 복숭아 문양 부분의 색감을 한 번 더 블렌딩해 볼뼈 아래쪽 움푹 들어간 포인트 부분에 덧바르면 혈색 있는 피부로 연출할 수 있고, 조금 더 화사한 피부 빛과 윤기를 위해서는 하이라이터로 이마, 콧등, 눈밑 그리고 턱 밑 부위 등을 가볍게 터치하면 된다.

에센셜 립세럼 스틱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 (4호, 9호)
Essential Lip Serum Stick

생기 넘치는 색상의 립세럼 스틱을 입술에 바르면 얼굴빛은 물론 마음까지 화사하게 피어난다. 입술의 건조함을 해소해주는 것은 물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다. **How to Use** 입술 세로 주름을 채우듯이 바른 뒤 생기가 부족한 부분에 한 번 더 바르고 입술에 건조함이 느껴질 때 수시로 덧바른다.



무릉도원 리미티드 컬렉션 선조들은 복숭아꽃이 만발한 도원도桃源圖를 많이 그렸다. 봄날의 분홍빛 복숭아나무 숲을 꿈 같은 이상향인 ‘무릉도원武陵桃源’이라 칭하고,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소망한 것. 종종 복숭아를 민화와 연적, 도자기 등에 함께 넣어 선물하곤 했는데, 여기에는 받는 이가 속세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오래도록 영위하길 바라는 마음이 깃들어 있다. 찬란한 계절 5월, 설화수는 전통 민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서하나 모던민화 작가가 펼쳐낸 무릉도원을 담아 한 폭의 그림 같은 리미티드 컬렉션에 소중한 이의 일상 속 순간마다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윤조에센스를 비롯해 퍼펙팅쿠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메이크업 멀티키트와 에센셜 립세럼 스틱 등의 풍성한 구성은 선물을 고르는 이의 마음까지 행복으로 가득 채운다. 무릉도원 리미티드 컬렉션과 함께 매일의 삶 속에서 생기와 기쁨을 누릴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자 유토피아 아닐까? S

Peach Blossom Spring Utopia Limited Edition Korean ancestors often painted landscapes that were filled with peach blossoms. They called them the forest of pink peach blossoms on a sunny spring day, the ideal ‘Land of Peach Blossoms,’ and wished for their peace of mind and happiness. They often drew peaches in folk paintings, using water dishes, ink, and porcelain, and gave them as gifts to wish for the happiness and wellbeing of their recipients. On this sunny May, Sulwhasoo embodied sincere hope that your days filled with happiness and serenity in this beautiful and artistic Peach Blossom Spring Utopia collection. It is created by modern folk painter, Seo Hana to help you find a dreamy shelter in your mundane life. This limited collection is consisted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Perfecting Cushion, Perfecting Cushion Brightening, Makeup Multi Kit, and Essential Lip Serum Stick. Your heart will be filled with happiness as you pick the right gift. With Peach Blossom Spring Utopia collection wouldn't it be both heaven and Utopia if you could enjoy vitality and pleasure every day for the rest of your life?



설화수 한복 체험 프로그램, 설화단장 Sulwha Danjang: Sulwhasoo's Hanbok Experience Program

전통과 현대의 아름다운 조화를 추구하며 다양한 시도를 해온 설화수가 이번엔 전통 한복을 젊은 세대에 전하는 한복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제대로 구현해낸 우리 한복과 장신구를 직접 누려보는 뜻깊은 호사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김도원(wonder boy studio)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전통 한복과 장신구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설화단장'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설화단장'은 전통 한복을 소재부터 형태까지 제대로 구현하고 현대적인 색감으로 세련되게 재해석, 우리 전통이 가진 고유의 아름다움을 보다 즐겁고 가깝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이다.

'설화단장' 한복 체험은 궁중과 사대부, 미인도까지 세 개 카테고리의 다양한 한복이 그에 맞는 장신구와 함께 구비되어 있다. 궁중 의상은 당의를 포함한 격식을 갖춘 궁중 예복과 삼작노리개 등의 장신구로 격조 높은 경험을 선사한다. 사대부 의상은 사대부 부녀자의 품위를 나타내는 우아한 색감과 고급스러운 소재로, 단아한 비취 노리개 등을 갖추었다.

마지막으로 미인도 의상은 조선 시대의 이름난 미인들의 한복을 재현한 것으로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며 예인이나 다름없었던 기녀의 화려한 장신구로 한껏 멋을 낸다. 설화수가 준비한 정성스러운 케어로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설화단장'은 매주 토, 일 오후 2시와 4시 30분에 예약제로 진행된다.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3층에 한복 디스플레이와 탈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단장을 마치고 나면 5층 루프탑 공간에서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하는 시간도 가진다. '설화단장' 역시 설화수 홈페이지에서 플래그십 스토어의 기존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예약할 수 있다. 감각적 이면서도 고귀한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한껏 누리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S

Sulwhasoo Flagship Store is promoting 'Sulwha Danjang' Program for customers to experience traditional Hanbok and accessories. Sulwha Danjang has reinterpreted the authentic Hanbok with traditional materials and designs, coupled with sophisticated and modern colors. 'Sulwha Danjang' offers different Hanbok designs and accessories in three categories: Palace, Nobility, and Beautiful Women. Palace costumes offer an experience to dress up as a royalty with formal ceremonial costumes and accessories such as Samjak Norigae. Nobility costumes are made with graceful colors and luxurious materials representing the dignity of noble women, including the elegant Jade Norigae. Last but not least, Beautiful Women costumes represented the Hanbok of the renowned beauties of Joseon Dynasty. You can dress up in bright colors with the glamorous ornaments by Gisaeng, who were the beautiful entertainers and performers during Joseon dynasty.

You can experience the traditional beauty of Korea with the devoted care brought to you by Sulwhasoo. Up to four people can try on Hanbok at no charge during each session. Upon trying on the costumes, you can have pictures taken at the rooftop garden on the 5th floor. You can sign up for 'Sulwha Danjang' on Sulwhasoo webpage. Sulwha Danjang takes place at 14:00 and 16:30 every Saturday and Sunday, and advance sign-up is required. This is an once-in-a-lifetime opportunity to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beauty of traditional Hanbok.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되는 '설화단장'은 사대부와 궁중, 미인도가 가진 한복의 특징적인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그 멋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설화수의 소식과 함께 아름다워지는 계절

윤기와 생기의 빛을 뿌리다

설화수는 홀리스틱 뷰티의 근본 원료인 자음단™을 언제 어디서나 뿌릴 수 있는 윤조에센스미스트를 선보인다. 자음단™ 효능을 높이기 위한 프렉스트랙트 프로세스™ 기술을 적용했으며 오일-워터 에센스가 미세하게 분사되어 피부에 즉각적인 보습과 영양을 공급한다. 세안 후 스킨케어는 물론 휴대하여 사용하면서 윤조에센스의 영양 성분을 하루 종일 피부에 채울 수 있다. 윤조에센스미스트 110ml, 7만원대 / 50ml, 4만원대(6월 출시)



무릉도원의 평온과 행복을 선물하다

설화수는 소중한 이의 삶을 생기 있고 행복한 일상으로 채우기 바라는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모던 민화 작가 서하나의 무릉도원 그림을 패키지에 담은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을 선보인다. 이번 리미티드 에디션은 윤조에센스, 퍼펙팅쿠션, 메이크업 멀티키트와 립세럼 스틱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선택의 폭이 넓다. 윤조에센스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 120ml, 15만원대/퍼펙팅쿠션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 15g×2, 6만5000원대/에센셜 립세럼 스틱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 3g, 4만원대/메이크업멀티키트 무릉도원 리미티드 에디션 8만5000원대



궁극의 빛으로 피부를 밝히다

설화수는 산자나무 열매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담아 피부 본연의 해사함을 찾아주는 쉬어 래스팅 메이크업 라인을 쿠션과 리퀴드파운데이션으로 구성해 출시한다. 쉬어 래스팅 젤 쿠션은 맬링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망으로 해사함을 채우고,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은 쉬어 하이드라 포물러 기술로 부드럽고 얇게 발려 즉각적으로 시원한 수분감을 극대화하면서 얼굴을 자연스러운 혈색으로 밝힌다. 쉬어 래스팅 젤 쿠션, 5만8000원대/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5만8000원대



설화수와 함께 한복의 아름다움을 체험하다

설화수는 우리 한복의 유려한 선과 소재를 전통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재해석이 더해진 한복을 체험할 수 있는 '설화단장' 프로그램을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진행한다. 궁중, 사대부, 미인도의 총 세 개 카테고리의 다양한 한복과 장신구가 구비되어 전통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다. 친구나 지인과 함께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체험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설화단장'은 설화수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후 매주 토·일 오후 2시와 4시 30분에 이용할 수 있다.



설화수 새 뮤즈 송혜교의 매화처럼 해사한 봄 외출

지난 3월 15일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설화수의 신제품 설린 라인 런칭 행사가 열렸다. 매화의 강력한 항산화 에너지를 담은 설린 라인의 소개는 설화수의 새 뮤즈 송혜교가 맡았으며, '설린'처럼 맑고 생기 넘치는 피부를 뽐내며 주목받았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 작가가 매화의 강인한 생명력을 미디어 아트월을 통해 각적으로 표현했고, TV 광고 속 송혜교가 등장한 아름다운 배경을 그대로 재현해 눈길을 사로잡았다.



치우침 없는 피부의 균형점을 찾아 생기로 꼭 찬 윤빛 피부를 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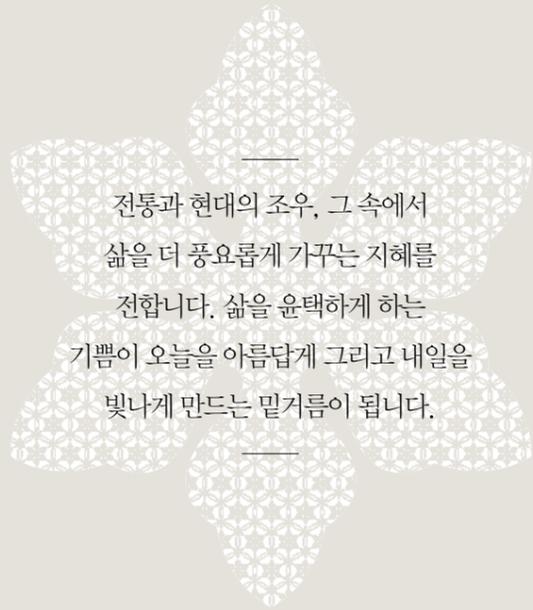
설화수 윤조에센스

피부는 한 가지만 관리해서는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귀한 다섯 가지 원료가 조화를 이루는 자음단™ 이 생기, 탄력, 투명, 자생력, 영양 등 피부의 균형점을 잡아주어 흐트러진 피부에 건강한 윤기를 선사하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매일, 생기로 꼭 찬 윤빛 피부를 만나세요





전통과 현대의 조우, 그 속에서
삶을 더 풍요롭게 가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쁨이 오늘을 아름답게 그리고 내일을
빛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의
식
다



부채, 좋은 바람 일으키는 자애

단오 누름꽃 부채 만들기

음력 오월 오일, 여름이 막 시작되는 단오절이 오면 우리 조상은 선물로 부채를 주고받았다. 임금에 여러 자루의 부채를 준비해 각 궁에 속한 재상과 시종에게 나눠주면, 부채를 받은 재상과 시종들이 이를 일가친척에게 나누어준 것에서 비롯한다. 이를 '단오선'이라 했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박재민 참고 자료 안주희 캘리그래피

도타운 사랑 깃든 단오 선물

요즘은 어딜 가나 추위를 느낄 정도로 냉방이 잘되어 있어 오히려 냉방병을 걱정할 처지이긴 하지만 품도 들고 엄청나게 시원하지도 않은 부채가, 그 부드럽고 서늘한 바람이 가끔 그리워진다.

부채를 선물하는 마음에는 자애와 배려가 담뿍 담겨 있다. 단오선도 그렇다. 여름이 오기 전 미리 임금이 부채를 준비해 신하에게 나누어 주었다. 가혹한 더위를 함께 잘 버티자는, 열심히 일한 그 땀을 내가 식혀주고 싶다는, 나랏님만이 품을 법한 자애의 마음이 엿보인다. 이렇게 부채를 하사하는 풍습은 중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 명나라 때 학자 이후李翹는 <계암만필필(戒庵漫筆)>에 “단오에 임금이 서울 관리들에게 궁중 부채를 하사하는데, 그 부채는 땀살에 종이를 바르고 새나 짐승을 그리며, 오색 천으로 애호艾虎를 감는다.”는 기록을 남겼다.

한편 <조선왕조실록>에는 단오진선端午進扇과 단오사선端午賜扇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단오진선은 부채의 명산지인 경상도와 전라도

의 각 관찰사들에게 명해 임금이 단오날 하사할 부채를 궁중에 바치게 한 것을 말한다. 단오사선은 단오날 궁중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부채다. 선조 37년 5월 단오절에 승정원·홍문관·실록교정청의 관원들에게 주찬酒饌과 부채를 하사했으며, 인조 15년 5월에는 왕이 안주安州의 군병들에게 부채 370자루를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동국세시기東國歲時記>에는 “궁조에서는 단오선을 만들어 바친다. 그러면 임금은 그것을 각 궁에 속한 하인과 재상, 시종신에게 나누어준다. 그 부채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흰 화살 같은 대나무살이 40개부터 50개에 이른다. 이것을 백첩이라 하고, 칠한 것을 칠첩이라 한다. 이것을 얻은 사람은 대개가 금강산 일만 이천 봉을 그린다. 전라도와 경상도의 감사와 통제사는 절선節扇을 올린다. 그리고 또 예에 따라 조정의 신사와 친지 등에 선사한다. 그리고 부채를 만든 수령도 진상하고 선사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 고종 31년 9월 3일 병자일에 군국기무처에서 단오진선의 폐지를 제외한 안전이 승인되어 사라지기까지 단오진선과 단오사선은 오래 지속되었다.



누름꽃 부채 만드는 법

준비물 부채, 압화꽃, 핀셋, 목공풀, 레진, 면봉, 접착식 한지, 가위 등
만드는 방법

- 1 압화를 핀셋을 이용해 부채에 먼저 올리고 적당한 디자인을 구상한다.
- 2 디자인이 완성되면 휴대폰이나 카메라로 찍은 후, 사진을 보며 목공풀로 꽃을 조금씩 붙여준다.
- 3 압화를 다 붙인 부채에 접착식 한지를 천천히 붙인다. 한지와 부채가 잘 붙을 수 있도록 결을 따라 휴지나 손으로 꾹꾹 눌러준다.
- 4 붙인 한지는 모서리를 깔끔하게 잘라주고 면봉을 이용해 꽃 부분에만 레진을 소량 발라준다. 너무 많이 바르면 끈적이고 잘 마르지 않으므로 조금씩 꼼꼼하게 바른다.
- 5 마무리 처리를 하고 잘 말려서 완성한다.

안주희캘리그래피 공방 캘리그래피, 서예, 문인화, 수채 캘리그래피, 전통 전각 등 손으로 만든 정성으로 마음을 전하는 공방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72 그랜드프라자 6층 612호 / 010-9697-0816)



아름다운 향기가 흐르는 누름꽃 부채

더위를 몰아내고 시원한 바람을 일으키는 부채는 소박한 여름철 선물로 예나 지금이나 펍 잘 어울린다. 부채는 바람을 일으킬 뿐 아니라 먼지와 오물을 날려 깨끗하게 하기에 옛사람들은 부채가 재앙을 가져오는 액귀를 물리친다고 믿었다. 그래서 단오에 주고받는 부채를 염병을 쫓는 부채라는 뜻의 '벽은선(辟瘟扇)'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악귀를 쫓는 곳에서도 부채는 빠질 수 없는 도구였는데, 사된 것을 쫓고 신을 부르는 상징적 구실을 했다.

또한 국상이나 친상 등 큰 장례가 닥치면 아무런 그림이나 글씨가 없는 '소선(素扇)'이란 부채를 2년 동안 지나고 다니기도 했다. 양반집 부녀자는 낮에 외출할 때 부채로 얼굴을 가려 드러나지 않게 했고 신분을 가리는 용도로도 널리 사용됐다. 그야말로 과거 부채의 쓰임새는 무궁무진했다 할 만하다.

현대의 부채 사용법은 과거에 비해 확실히 축소됐다. 용도 역시 더위를 쫓기 위한 데에 국한된다. 여름철 홍보용으로 제작된 부채로 한철을 그려져력 지내는 것이 대부분일 터. 하지만 나만의 부채가 있다면

쓰임이나 의미가 더 특별해질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직접 부채를 만들어보았다. 곱게 눌러 말린 누름꽃(압화)을 부채 위에 붙여서 아름답게 꾸민다. 기본이 되는 부채는 아무런 무늬가 없는 것을 준비하는데, 꽃을 붙이면 잘 접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선 형태를 고르는 게 좋다. 누름꽃은 요즘 사랑받는 공예 재료로 인터넷에서 다양한 종류를 판매하고 있어, 선택의 폭이 꽤 넓다. '배움의 기쁨'에서는 여러여러한 분홍빛이 벚꽃을 떠올리게 하는 락스퍼(미나리아재비)와 가장 흔하지만 소박한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는 개망초를 골라보았다. 화려한 꽃다발처럼 꾸미고 싶다면 다양한 꽃을 섞으면 좋고, 깔끔한 디자인을 원한다면 한두 종의 꽃을 고른다.

고른 꽃을 부채 위에 위치를 잡아가며 조화롭게 디자인하고 풀로 고정시키는데 앞과 줄기를 먼저, 꽃을 나중에 붙인다. 그리고 위에 한지를 붙여 튼튼하게 고정시킨다. 한지의 꽃 부분에 레진을 칠하면 꽃의 형태나 색감이 더 살아나 싱싱해진다.

이 찬란한 봄, 한껏 피어났던 꽃들의 생생한 흔적을 부채 위에 담아보면 어떨까? 소중한 이에게 건넨다면 이 꽃 가득한 부채가 그에게 늘 좋은 바람을 전해줄 것이다. S

차곡차곡 정성 쌓아 나서는 봄길 The path of spring with heaps of care

바야흐로 완연한 봄. 그리고 여름의 문턱.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에 유유자적인 소풍을 떠나고 싶다.
가까운 뒷산이라도 오를 때는 차가운 차 한 병과 간단한 도시락이면 그만이다.
거창한 잔이 없어도, 오랜만에 민낯을 보이는 맑은 하늘 아래에선 모든 게 꿀맛일 터이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중앙박물관, 강희정 작가

찬합饌盒은 반찬을 여러 층으로 담아 보관이나 운반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든 그릇을 뜻한다. 일반적인 형태는 합을 3~5층 차곡차곡 올려 놓고 이것을 나무로 만든 궤에 다시 넣어 운반 또는 휴대할 수 있게 만들거나, 서랍 몇 개를 포개어 바로 들 수 있게 한다. 서랍을 궤에 담을 때는 궤의 앞이나 옆면에 세로로 긴 줄을 한두 개 내어 안에 넣은 서랍이 밖에서도 보이게 했으며, 문이 되는 판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 끼우며 닫도록 했다.

찬합의 재질은 목재로 만든 목합木盒이 대부분이고 사기나 대나무, 등나무 줄기를 쪼개 엮어 만들기도 했다. 나무 찬합은 물기가 있는 음식이 스며들어 부패하지 않도록 옷칠을 했고, 마른 찬을 담아두는 것에는 기름칠을 했다. 조선시대 관청에서 운영했던 여관인 院에서는 투숙객에게 밥만 제공했기 때문에, 여행자들은 자기가 먹을 반찬이나 음식을 찬함에 지니고 다녀야 했다.

이 찬합은 19~20세기 유물로 조선시대 목가구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받침다리와 흡사한 받침대에 손잡이를 달고 반찬을 담은 목판을 얹은 형태다. 3단의 목판을 안전하게 지지하기 위해 세운 옆면의 판재에는 풀 무늬를 투각해 장식했다. 또한 주석으로 만든 거멸장이 각 모서리를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몸체의 질은 나무색에 대비된 화려한 장식 효과도 주었다. 한편 강희정 작가의 3단 도시락은 아이들의 소꿉놀이를 콘셉트로 감각적인 문양을 넣어 장식했다. S

Chanhap refers to a set of containers that are designed to store or carry side dishes on top of each other. Generally, three to five containers are stacked and carried on a wooden chest, or several drawers are piled to be hauled right away. When drawers are contained in a chest, one or two vertical pieces are placed on the front or on the side of the chest so that the drawers inside can be seen. Most Chanhap was made of wood, but porcelain and bamboo or Japanese wisteria barks were sometimes also used. Wooden Chanhap was lacquered to prevent wet food causing smearing. Containers for dry food were coated with oil instead. Won, the inn run by government offices during the Joseon Dynasty, provided guests with rice only, so travelers had to carry their side dishes or main dishes in Chanhap. This Chanhap is a relic from the 19th-20th century. It has a similar handle on a support that often matched with the wooden furniture from the Joseon Dynasty to hold a wooden plate for side dishes. A side board, which is erected to stably support the three-tiered wooden panel, that is engraved with a grass pattern. The Geomeoljang, which is made of tin, holds the edges with shiny ornamentation that is in contrast with the dark wooden color. The three-tiered wooden lunchbox of artist Kang Hee Jung is ornamented with sensible patterns that are inspired by children's lunchbox toy sets.



찬합, 조선시대



〈소꿉 Playhouse〉, 강희정



푸레옹기의 독특한 색감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고운 가마에서 생겨난 재를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게 해 연한 녹색 계열의 재유를 발색시키고, 그 위에 약간의 천일염을 뿌린 후 다시 연기를 쐬어 완성한다.

아름다움이라는 자존감

디자이너 조기상

한국만이 가진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우리가 살아왔고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우리의 뿌리이자 우리 자신이 가진 독특한 아름다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질문이자 이제야 모두가 궁금해하는 정답을 알아내는 과정은, 흩어져 있던 스스로를 찾아 모으는 길이기도 하다.

에디터 민소연 사진 오희원

조기상 디자이너의 사무실이자 작업실은 창덕궁 돌담길 안쪽으로 죽 걸어 올라가야 나왔다. 창으로 고즈넉한 창덕궁과 그 너머 산의 윤곽이 한눈에 들어온다. 그는 이 풍경을 바닥에 앉아서 보아야 제격이라 했지만, 서서 보는 것만으로도 그 분위기를 짐작하고 남았다. 하늘과 궁궐과 산이 이루는 아름다움은 언제나 옳고 특별하므로, 건축, 인테리어, 공예, 시각, 미디어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디자인 프로젝트를 이끄는 집단 '페노메노'의 대표로서 조기상은 그동안 많은 일을 해왔다. 전통 한국 공예의 맥을 잇는 공방의 장인들과 함께한 협업이 특히 인상적이다. 유기장 김수영 선생과 작업해 내놓은 유기 식기 등 한국 전통의 미감을 현대적 감각으로 다시 바라보는 그의 시도는, 마음을 끄는 아름다운 물건을 탄생시킨다. 해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그가 전통에, 그리고 '한국적인 것'으로 돌아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저 당연한 필요였고 결과라고 생각해요.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이에요. 그 사람이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영향 받은 문화적 토대 말입니다. 물건에도 문화 속에서 오랜 시간 녹아드는 그러한 바탕이 있지요. 자신의 고유한 기반 없이 디자인을 하고 물건을 만들면 그 결과물은 알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고 자란 한국을 더 잘 알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디자이너로서 발견한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무엇일까? 그것이 한마디로 규정될 수는 있을까? 질문들이 계속해서 떠오른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아주 독특하다고 생각해요. 자연을 고스란히 다 담으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의 욕심껏 정제하거나 컨트롤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자연 자체가 되지요. 한옥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거창한 정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문을 열면 자연과 하나가 되고, 그 일부가 됩니다. 물건 하나를 만들 때에도 비워내는 철학과 끊임없는 자기 수양을 가치로 삼지요." 조기상 디자이너가 애장품으로 내놓은 푸레옹기 역시 그가 발견한 한국적인 미감을 품고 있었다. 새벽 밤하늘의 짙푸른 어둠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과 연마가 필요하다. "흙, 돌, 나무, 쇠 등으로 불과 물을 이용해서 온갖 사물을 만드는데, 그 중에 사람과 가장 닮아 있는 소재는 다름 아닌 흙입니다. 오로지 자연의 방법만으로 빛깔과 색깔이 구현되는 영롱함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S



새롭게 발견하는 한국 춤의 지평

한국 춤에 대해 잘 알지 못했거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국립무용단의 <향연>은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것이다. 전통을 현대의 감각으로 재해석한 그 두 시간 동안의 춤사위에, 당신은 한국 춤과 사랑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에디터 민소연 도움 주신 곳 국립무용단

'특별히 융숭하게 손님을 대접하는 잔치'라는 의미를 가진 그 제목처럼, 공연 <향연>은 무한한 정성과 공을 들여 펼쳐내는 한비탕 잔치다. 그동안 국립무용단은 우리 전통 춤을 모아 새롭게 구성하는 작업으로 여러 작품을 선보였는데, <향연>은 가장 새로운 감각을 지니며 그 백락 위에 있다. 옛 전통을 정수에 두되 신선한 지금의 공기를 가득 머금고 있다. 2015년 12월 초연 이후 한국 무용 무대로는 이례적으로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한국 춤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다소 고루하게 느껴졌던 전통 춤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동시대, 특히 20~30대 젊은 관객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문민화에 담긴 절제와 여백의 미가 무대 위에서 모던하게 펼쳐지면서 정갈한 한국 무용의 아름다움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는 점은 <향연>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이다. <향연>의 춤과 무대는 이 시대 최고의 대가들이 만나 완성됐다. 안무를 맡은 무용가 조흥동은 창의적인 춤사위로 한국 무용의 표현 영역을 확대했다는 평을 듣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92호 태평무 이수자이자,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5호 한량무 보유자이기도 하다. 한편 연출을 맡

은 정구호는 한국을 대표하는 패션디자이너이자 아트디렉터다. 자신의 이름을 딴 '구호KUHO'를 비롯해 여러 패션 브랜드를 만들었고 미국에도 진출해 <뉴욕 매거진>이 선정한 '2011년 주목해야 할 9명의 디자이너'로 꼽히기도 했다. 이 두 거장의 만남만으로도 화제가 되었던 만큼, <향연>의 무대는 한국 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향연>은 한국 춤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아우른다. 종묘제례 때 추었던 궁중무용부터 바라춤과 같은 종교무용, 장구춤 같은 민속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변화 위에 녹아든다. 종묘제례의 범절과 의미를 담은 경건한 움직임부터 신명나는 디딤새를 선보이는 조흥동의 안무에 장식을 절제하고 그 단순한 아름다움을 거대한 장관으로 변화시키는 정구호의 연출이 만나 절정의 무대가 만들어진다. 1막은 봄이다. 공연을 알리는 박이 울리면 북소리가 긴장감을 고조시키며 막이 열린다. 24명의 무용수가 편종의 울림에 따라 일제히 움직인다. 흑과 백, 두 가지의 색만이 존재하는 강렬한 대비의 세계. 왕의 문공을 찬양하기 위해 '보태평지무'의 하나인 '전폐희문'에 따라 구성하는 '제'이다. 이는 전체 작품을 알리는 공손한 인사이기도 하다. 무용



<향연>의 총 4막 중 가을을 의미하는 3막의 '소고춤'은 남자 무용수들의 화려한 춤사위가 드러나고, 봄을 표현하는 1막에서의 '진연'은 하얀 모란과 빨간 매듭의 대비를 보여준다.



국립무용단 〈향연〉 일정

서울 공연

일시 2018년 6월 6~9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2-2280-4114

대전 공연

일시 2018년 6월 15~16일
장소 대전 예술의전당 아트홀
문의 1544-1556

좌측부터 3막의 '장구춤', 4막의 '신태평무', 1막의 '제의', 2막의 '진쇠춤'으로 국내 최고 기량의 무용수와 대가들이 모여 한국 무용의 지평을 보여준다.

수들이 두 손을 들었다 상체를 구부리며 예를 갖춘다. '진연'은 '아름다운 사람이 모란을 꺾는다.'는 의미로 꽃을 한가득 꺾은 향아리(목단화중)를 가운데 두고 모란을 꺾으며 추는 춤인 '가인전목단'을 토대로 재현했다. 역대 왕 중 가장 춤을 사랑했던 효명세자에 의해 만들어진 이 춤을 원래 복식인 황초단삼에 무채색의 단삼으로 변화를 주고 새하얀 모란과 빨간 매듭의 대비로 현대적인 감각을 불어넣었다. 봄의 마지막은 '무의'로 장식된다. 어두운 무대에 한줄기 빛을 따라 여덟 명의 무용수가 나란히 선다. 오와 열, 검의 각을 맞춰 간결하면서 강한 동작으로 검술을 하듯 춤사위가 펼쳐진다. 2막, 이제 여름이 됐다. 하얀 도포 차림을 한 24명의 무용수가 들고 있는 48개의 은빛 바라가 조명에 반짝인다. '바라춤'은 불교의식에 행해진 무용으로 모든 악귀를 물리치고 마음을 정화하려는 의지를 품고 있다. 이어 '승무'가 이어진다. 흰 저고리와 장삼을 걸치고 자줏빛 치마를 두른 일곱 무용수가 법고 앞에 선다. 원래 독무인 이 춤이 〈향연〉에서는 군무로 재현되는데, 고깔을 빼고 긴 장삼으로 만드는 춤사위가 활달하다. '살풀이춤' 역시 독무 형식을 7명의 군무로 구성했다. 경기도

당곳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살풀이춤은 무속무로, 열두 자 길이의 명주 수건으로 망자의 액운을 풀고 생전의 애환을 달래 극락으로 천도하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한편 '진쇠춤'은 쟁과리 소리와 함께 여름의 기운을 한껏 드러낸다. 3막은 온갖 색으로 물드는 가을이다. 거문고 장단에 맞춰 무대에 앉은 선비들이 부채를 펴 든다. 여유와 기품이 묻어나는 동작으로 '한량무'를 선보이고 한창 흥이 오를 무렵 백색의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무용수들이 등장해 '동래학춤'을 춘다. 이어 여성 무용수들이 장구로 경쾌한 장단을 울린다. 초록 치맛자락이 강렬하다. 맺고 푸는 장단의 시작과 끝을 춤사위가 알싸하게 살려내어 시선을 끈다. '장구춤'은 후반부로 갈수록 무용수들의 구음과 장구 장단이 고조되어 극적인 흥분을 안긴다. 실 틈 없이 몰아붙인 장단은 '소고춤'으로 이어진다. 13명의 남자 무용수가 개개인의 화려한 춤사위를 뽐낸다. 굿거리, 자진모리, 휘모리 등 다양한 장단이 활달한 발제간과 박력과 함께 대결하듯 펼쳐진다. 이 흥겨움을 '오고무'가 이어받으면 대북의 웅장하고 절도 있는 울림으로 역동성이 더욱 증폭된다. 24명의 무용수가 일제히 선보이는

'오고무'는 치자를 닮은 셋노란 빛깔의 의상과 모노톤으로 채색한 복이 대조를 이루며 무용수들의 움직임이 더 선명하게 떠오른다. 마지막으로 4막, 겨울이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박이 울리고 절도 있는 동작과 함께 박을 연주하는 서무가 끝나면, 무대에 7개의 거대한 노란 매듭이 드리워진다. 청색 의상에 사모를 본뜬 관을 쓰고 손에 적삼을 든 남성들의 춤에 이어 매듭의 높낮이가 바뀌고, 족두리를 쓰고 적색 의상을 차려입은 여성들이 등장한다. 여성 무용수들은 적삼을 들지 않은 대신 겹옷 밖으로 폭이 좁은 흰 소매가 드러나는 상의를 입어 섬세한 손놀림이 더욱 돋보인다. 본래 '태평무'에는 오방색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이 의상에 사용되지만, 〈향연〉에서의 의상은 빨강과 파랑으로 단순화하고, 매듭은 노랑, 무대엔 흑과 백만을 사용해 절제된 오방색을 완성했다. 50여 명의 무용수가 한데 모여 왕실의 번영과 나라의 태평성대를 기원하면서 모든 춤이 마무리된다. 두 손을 곱게 모으고 인사하며 지금의 안녕에 감사하고 다가올 새로운 봄을 기약한다. 이처럼 사계절 안에 흐르는 우리의 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결국기가 막히게 아름다움을 〈향연〉을 통해 배우고 깨닫는다. S

금빛의 풍요가 일상을 채운다

예로부터 왕의 색, 권력의 색이었던 골드 컬러가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다. 찬란한 금빛은 맛있는 공간을 풍부하고 우아하게 마무리한다. 선뜻 선택하기 어려운 색이지만 홀리듯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골드 컬러의 기쁨을 확인해보자.

에디터 박효성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뷰로드 플로리아)



전구 모양의 골드 펜던트 조명은 덴마크 디자인 스튜디오 Light year에서 선보인 Calabash P1으로 이노메사에서 판매한다.



세라믹 티포트와 골드 컬러 커버가 분리되어 실용적이면서 우아한 브레드메이커 티포트는 all729.com에서 판매한다.



종이접기에서 영감을 얻어 골드 소재로 제작된 라운드 형태의 사이드테이블은 Hay by 이노메사.

가장 화려한 색이라서 오히려 인테리어를 방해한다고 여겨졌던 골드 컬러가 이제는 강력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인테리어 트렌드의 바로미터인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최근 골드 장식을 활용한 디자인을 많이 볼 수 있다. 모던한 북유럽 스타일은 물론 빈티지한 감성의 프렌치 인테리어나 한옥의 자연친화적인 꾸밈에서도 골드 컬러는 포인트 역할을 톡톡히 한다. 집 안에 골드 컬러를 들일 때에도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소품을 통해 포인트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골드 컬러 소품은 화이트나 파스텔 톤에서 차분하게 분위기를 잡아줄 수 있고, 퍼플이나 네이비 컬러와 매치하면 웅장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특히 블랙 컬러와는 완벽한 조화를 이뤄 생동감을 선사한다.

골드 컬러는 풍수지리와 컬러테라피적인 의미로도 꽤 마음이 간다. 풍수지리에서는 재물운과 행운을 부르는 색으로 사용하고, 심리적으로는 명예와 자존감을 높여주며 이성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줘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빛나게 채워준다. S



100여 년 전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최초로 금형으로 제작된 튜브 디자인 그대로운 탁상시계는 LEFF by 이노메사.



와인의 맛을 신선하게 유지해주는 유리 와인잔은 거창유기 by 해브빈서울.



구리 소재로 세월이 흐르면 멋스러운 색으로 변하는 삼각형 플레이트 세트는 브레이크타임킷.



수프나 커리 등 음식의 담음새가 좋은 넓은 유기 그릇은 다문컬렉션.



장인의 기술에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진 원기둥 모양의 심플한 유기 촛꽂이는 나우프로.



목가구에 장식되는 장식을 황동색 집게로 재해석했다. 나비 모양은 행복과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CH Project by 해브빈서울.



낮에는 골드 보디로, 밤에는 LED 전구로 공간을 밝혀주는 테이블 램프는 빛홈.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고안된 다이아몬드 모양의 비누꽂이는 나우프로.



전통적인 장인의 제작 방식과 현대적인 디자인이 만난 유기 디저트 접시는 다문컬렉션.

같이라서 가치 있고 더 어여쁘다

가족의 달 5월에는 연인과 부부,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속에 있는 별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커플 아이템을 함께 해보자.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애뜻함이 샘솟을 것이다.

에디터 박효성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장세희(부로드 플로리아)



라피아 소재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고 클래식하고 고급스러운 여름 패션을 완성해주는 모자는 헬렌 카민스키.



블랙과 화이트의 감각적인 패턴 디자인을 적용한 성인용 크로스백과 유아용 백팩은 가족 나들이 가방으로 제격이다. 키티버니포니.



고급스러운 황동 컬러와 스톤을 매치해 정장 커플룩 액세서리로 잘 어울리는 귀걸이와 부토니에르는 남유진 작가의 작품으로 by KCDF 갤러리숍.

연애의 시작은 커플링을 나눠 끼는 것이라 여겼던 시절, 그때는 반지가 예뻐서라기보다 '내 소유'라는 것을 증표로 남기고 싶은 심리였을 것이다. 그래서 커플룩은 애정지수를 높이고, 같은 아이템을 선물하며 커플을 인증하는 콩나콩나한 추억이다. 힘들고 괴로운 일, 기쁜 일까지 모두 나누는 사랑하는 이들과 예쁜 기억을 새길 수 있는 커플 아이템을 활용해보자. 스탬프 찍듯 똑같은 아이템으로 연출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듯 멋스럽게 각자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시밀러룩'을 추천한다. 옷이 가벼워지는 요즘은 모자, 선글라스, 신발, 가방 등 한 가지 정도만 맞춰도 은근하고 근사한 시밀러룩이 된다. 포인트 컬러를 선택해 가지고 있는 옷이나 소품으로 스타일링하는 것도 편하고 색다른 커플룩을 연출하는 방법이다. 아이와 부모가 함께 컬러를 통일한 패밀리룩은 센스 넘치는 나들이 패션 스타일링이 된다. 최근에는 패밀리룩이 트렌드로 떠오르며 다양한 브랜드에서 어른과 아이가 함께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많이 선보이고 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패밀리 아이템으로 멋쟁이 가족이 되어보자. S



건축물의 구조적인 디자인이 적용된 완벽한 블랙과 화이트 컬러 시계는 시크한 커플 아이템이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D1 Milano by 디원밀라노.



아이와 엄마가 함께 입을 수 있는 목욕 가운 겸 비치 가운. 초극세사 소재로 물 흡수력이 뛰어나다. 리틀스칸디.



클래식한 60년대 디자인을 재현한 선글라스는 테의 컬러를 달리하면 센스 넘치는 커플 아이템이 된다. 마노모스.



대놓고 드러내지 않고 은근하게 커플룩을 연출하고 싶다면 앙말만 한 게 없다. 삭스더랭귀지.



예쁜 베갯모 장식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동전 지갑은 엄마와 딸을 위한 커플 아이템으로 추천한다. 량량 by KCDF 갤러리숍.



원단에 매번 직접 드로잉한 패턴을 사용해 세상 단 하나의 작품을 여러 케이스로 소유할 수 있다. 조예령 작가 작품.



귀여운 미키마우스를 엄마와 아이의 신발에 담은 커플 신발. 부드럽고 말랑한 소재로 착화감이 편하다. 멜리사.



천연 염색으로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색을 담은, 명인들의 바느질로 완성한 스카프는 온새로미 by 해브빈서울.



전통 매듭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팔찌. 멋스럽고 독특한 색상이 특징이다. 량량 by KCDF 갤러리숍.



〈Sulwhasoo〉 독자 선물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관람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독자 서비스를 이용해 응모 가능하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99p 독자 선물 지면을 참조하세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사랑의 돌풍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거릿 미첼의 원작 소설과 영화를 통해 오랜 시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고전이 5월부터 뮤지컬로 무대에 오른다. 2015년 한국 초연 이래 두 번째 시즌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캐스팅으로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미국 남북전쟁 속에서 스칼렛, 레트, 애슐리, 멜라니라는 네 명의 인물이 펼쳐 내는 삶에 대한 의지와 강인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프랑스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진 뒤 한국에서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다.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스칼렛 역은 초연을 통해 ‘스칼렛 그 자체’라는 원작자의 칭송을 받은 가수 바다가 초연에 이어 다시 맡아 한층 깊어진 연기가 기대된다. 남자주인공 레트 버틀러는 원조 테리우스로 불리는 가수 신성우를 통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바다 외에 스칼렛 역은 믿고 보는 뮤지컬 배우 김보경과, 그룹 에프엑스의 멤버 루나가 캐스팅됐으며, 레트 역은 뮤지컬 배우 김준현과 가수 테이가 맡으며 역대급 캐스팅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MBC드라마 채널을 통해 방송되는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캐스팅 콜’을 통해 선발된 신인 배우들이 남녀 주인공으로 추가 캐스팅될 예정으로 화려하고 다양한 배우들의 활약이 호기심을 더한다.

일시 5월 18일~7월 29일 장소 샤롯데씨어터 문의 02-549-9550



색채의 미술사 사갈의 인생을 만나다
〈마르크 샤갈 특별전 - 영혼의 정원展〉

사갈은 초현실적이고 서술적인 구성과 배치, 탁월한 색채로 풀어내는 표현으로 보는 이를 환상의 세계로 이끈다. 오랜만에 국내 최대 규모로 찾아온 색채의 미술사 사갈의 마법에 빠져보자.

마르크 샤갈(1887~1985)은 우리에게 친숙한 작가다. 꽃, 연인, 신랑 신부, 동물, 마을 등 일상적인 소재를 미술적이고 다채로운 상상의 세계로 표현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그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국내에서 개최된 전시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볼 수 있는 〈마르크 샤갈 특별전 - 영혼의 정원展〉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의 사랑과 인생을 상징하는 255여 점의 작품들을 정원을 산책하듯 관람할 수 있도록 4부로 나눠서 소개한다. 1부는 꿈과 우화, 종교적 상징주의와 낭만주의로 가득한 작품 세계를, 2부는 전쟁과 피난 등 고통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사갈의 내면 세계를, 3부는 사갈의 가장 대표적인 주제인 꽃과 꿈, 서커스를 포함한 초현실적인 작품들로 구성되며, 4부는 그의 개인적인 러브 스토리를 소개한다. 뿐만 아니라 사갈의 작품 이미지를 미디어 인터랙티브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일러스트레이션 삽화집을 통해 사갈의 다채로운 꿈과 마법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다. 일시 8월 19일까지 장소 M컨템포러리 아트센터(르 메르디앙 서울 1층) 문의 02-3451-8187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한국 오페라의 역사를 시작한 작품인 〈춘희〉의 공연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과 이탈리아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라 트라비아타〉가 찾아온다. 유럽 오페라계의 거장 지휘자 디에고 크로베티의 섬세한 작품 해석과 김지현, 김동규 등 최정상 성악가가 함께한다. 일시 5월 25~27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문의 02-543-2351

뮤지컬 〈맨 오브 맨〉



국내에서 여덟 번째 선보이는 〈맨 오브 맨〉은 티켓 오픈과 함께 예매율 1위로 등극했다. 자신을 돈키호테라 믿는 과짜 노인 알론조와 그의 시종 산초가 함께하는 우스꽝스러운 기행이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선사한다. 일시 6월 3일까지 장소 블루스퀘어 인터파크홀 문의 02-556-9885

무용 〈맨 메이트〉



파격적인 에너지로 현대무용계에서 팬덤 신화를 일으키고 있는 안무가 신창호와 국립무용단이 만난 〈맨 메이트〉. 한국무용의 DNA가 담긴 곡선 형태의 춤사위와 혁신적이고 환상적인 미디어 아트로 꾸며지는 무대 미술이 새로운 차원의 무용 공연을 선사한다. 일시 5월 10~12일 장소 LG아트센터 문의 02-2280-4114

책 〈당신이 앉은 그 의자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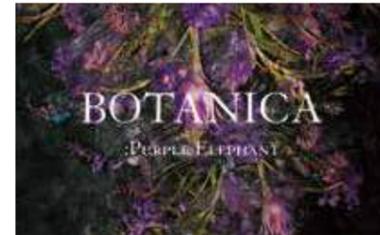
의자 편력을 가진 디자인 칼럼니스트 김신은 시대의 트렌드를 대변하는 상징물로 의자를 탐구했다. 의자가 품은 각양각색 비밀과 함께 역사적인 순간과 영화에 등장했던 의자도 소개하는 섬세한 의자 이야기에 책을 펼쳐면 지리를 뜨지 못한다. 지은이 김신 출판사 디자인 하우스

전시 〈카운터밸런스〉



40여만 명의 관람객을 기록한 지난해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의 귀국 보고전인 〈카운터밸런스〉가 코디 최, 이완 작가와 함께한다. 두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운 시도를 선보였으며 한국 미술의 독창성과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일시 5월 20일까지 장소 아르코미술관 문의 02-760-4604

전시 〈보타니카: 퍼플엘리펀트〉



꽃과 식물이 조명과 음악, 뉴 미디어 미술, 향기 등과 어우러져 오감으로 만끽할 수 있는 전시다. 상상 속에서 보라 코끼리를 떠올리듯 전시를 본 이들이 마음속에 각각 다른 기억과 감동을 가져갈 수 있도록 5개의 주제로 싱그러운 자연과 다양한 아트 기법을 조합했다. 일시 6월 20일까지 장소 더서울라이트룸 문의 02-3462-5456

Sulwhasoo 아름다움을 완성하는 설화수 제품들

클렌징 라인

- 중중비누**
홍삼진액의 항산화 효능으로 메이크업과 생기는 피부를 선사하는 40일 속성 프리미엄 한방 비누
100g x 2 | 45,000원대
- 순행클렌징워터**
메이크업과 노폐물을 알코올이 없애주는 촉촉하고 편안한 수분 클렌징 워터
200ml | 38,000원대
- 순행클렌징오일**
신성한 사용감의 오일이 얼굴에 부드럽게 물리지는 저자극 클렌징 오일
200ml | 40,000원대
- 순행클렌징폼**
피부 노폐물을 알코올이 없고 피부의 촉촉함은 유지해주는 저자극 클렌징 폼
200ml | 35,000원대

에센셜 라인

-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긴장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 | 90,000원대
90ml | 120,000원대
- 윤조에센스미스트**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생기는 윤빛 피부를 선사하는 미스트 타입의 에센스
110ml | 7만원대
50ml | 4만원대
- 윤조마스크**
자음단™을 미세한 코튼 시트에 담아 메이크업을 선사하는 집중 밸런싱 케어 마스크
5매 | 60,000원대
- 자음수**
깊은 흡수력으로 피부를 촉촉히 적셔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쉬 타입 스킨 에센스
125ml | 57,000원대
- 자음유액**
메이크업 피부를 부드럽게 흡수되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는 소프트 로션
125ml | 63,000원대

스페셜 라인

- 윤결에센스**
피부를 촉촉히 가꾸어 메이크업과 단정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피부 결 정리 에센스
50ml | 125,000원대
- 섬리안크림**
눈가 피부에 얇게 밀착되어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주름 개선 아이크림
25ml | 115,000원대
- 탄력크림**
탄력제™가 피부를 지지하는 힘을 높여 탄탄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탄력강화크림
75ml | 105,000원대
- 미안피니셔**
앞서 바른 성분의 효능은 올리고 피부를 갠서 윤기 보호막을 형성하는 스킨케어 피니셔
80ml | 90,000원대
- 소선보크림**
(TPF 40 / SPF 30 / PA+++)
빛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안티에이징 데이크림
50ml | 150,000원대
- 에스칭크림&패치**
입가 필자 부위를 탄력 있게 케어해 주는 크림&패치
25ml(크림)+10개(패치) | 200,000원대
- 탄력네크림**
자선제™와 5가지 한방 오일로 안전한 목 피부를 탄탄하고 메이크업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네크림
60ml | 80,000원대
- 영의본초염물**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의 힘을 보충하고 윤곽선 피부로 가꾸어주는 8주 케어 안티에이징 염물
8ml x 4 | 200,000원대

자정 라인

- 자정클렌징폼**
백도 성분 노폐물을 제거해 환한 피부로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클렌징 폼
150ml | 40,000원대
- 자정토닝팩**
백상 성분을 담은 젤 모놀라가 메이크업을 없애주는 피부 보습을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80ml | 65,000원대
- 자정수**
자신 피부를 정돈해 주고 마백 효능을 끌어 올려 주는 쉬 타입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 65,000원대
- 자정유액**
피부 위로 촉촉함이 부드럽게 퍼져 유분하고 맑은 피부 상태로 가꾸어 주는 브라이트닝 스킨
125ml | 70,000원대
- 자정미백에센스**
백상 마백 성분이 맑고 투명한 어린 피부 빛을 끌어올려주는 브라이트닝 에센스
50ml | 210,000원대
- 자정미백스팟트리트먼트**
기미·잡티 생성을 억제하고 주변 유분 환경까지 케어하는 국소 부위용 스팟 트리트먼트
25ml | 130,000원대
- 자정미백아이에센스**
쿨링 자막 어플리케이션과 젤 텍스처가 눈가 피부를 맑게 가꾸어주는 브라이트닝 아이에센스
15ml | 75,000원대
- 자정미백크림**
브라이트닝 활성 성분이 촉촉하게 빛나고 투명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브라이트닝 크림
50ml | 135,000원대

섀린 라인

- 자정미백마스크**
자정미백이 증가적으로 고밀착 시트가 조각작으로 맑은 안색과 탄력감을 선사해 주는 브라이트닝 마스크
5매 | 65,000원대
- 섀린 수**
메이크업의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촉촉하게 메이크업 피부 보습을 가꾸어주는 인티폴루션 스킨 섀린 크림
150ml | 75,000원대
- 섀린에센스**
메이크업의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꾸어주는 섀린 에센스
50ml | 140,000원대
- 섀린크림**
메이크업의 항산화 에너지를 담아 피부의 생기를 깨우고 맑은 피부로 가꾸어주는 섀린 에센스
50ml | 150,000원대

자음생/자여진 라인

- 자여진에센스**
주름은 없애내고 탄력은 끌어올려주는 인삼 겔수 타입 에센스
35ml | 150,000원대
50ml | 180,000원대
- 자음생페이셜오일**
귀하게 얻은 중삼수™가 동일한 오일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보습을 선사하는 페이셜 오일
20ml | 130,000원대
- 자음생수**
귀하게 얻은 중삼수™가 동일한 오일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피부 보습을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80,000원대

수술 라인

- 자음생유액**
귀하게 얻은 중삼수™가 메이크업 피부에 탄력과 영양을 공급하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125ml | 90,000원대
- 자음생아이크림**
주름과 탄력을 케어해 힘 있고 메이크업이 잘 지는 피부 보습을 선사하는 홍삼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0ml | 180,000원대
- 자음생크림**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250,000원대
- 자음생크림 라이트**
인삼 결정체가 피부 활력을 선사하는 인삼 안티에이징 크림 (선평한 질감)
60ml | 250,000원대
- 자음생마스크**
자음생크림의 성분과 더불어 랩핑 시트™가 탄탄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크리미 시트 마스크
5매 | 120,000원대
- 수술미스트**
즉각적인 청량함과 수분 공급으로 피부에 명운함을 주는 수분 진정 미스트
100ml | 42,000원대
- 수술크림**
시원한 자차나무 수액이 피부를 편안하게 가꾸어주는 수분 크림
50ml | 90,000원대
- 수술섀플루이드**
(SPF 50+ / PA+++)
수분 공급,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케어하는 수분섀플루이드
50ml | 55,000원대

바디 & 헤어

- 동백윤오일**
천연 유래 동백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오일
100ml | 35,000원대
- 에센셜샴**
홍화의 고농축 오일이 끈적임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선사하는 헤어 샴
15g | 40,000원대
- 연섬바디크림**
노화로 인해 흐트러진 피부를 탄력 있게 가꾸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바디크림
200ml | 80,000원대

진설 라인

- 진설수**
적송 성분이 촉촉 흡수 되어 깊이 있는 촉촉함을 선사하는 안티에이징 스킨
125ml | 110,000원대
- 진설유액**
적송 성분이 피부 결을 매끈하고 유연하게 가꾸어주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125ml | 120,000원대
- 진설에센스**
적송의 생명력과 항산화 에너지가 피부 활력을 높이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에센스
50ml | 330,000원대
- 진설아이에센스**
적송 성분과 글로이케어 마시지가 빛나는 눈가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에센스
20ml | 270,000원대
- 진설아이크림**
눈가 피부의 주름과 칙칙함을 케어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아이크림
25ml | 270,000원대

다함설 라인

- 진설크림**
적송과 송이의 생명력으로 한결 깊은 젊음 피부를 선사하는 프리미엄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450,000원대
- 진설클렌징폼**
진하고 부드러운 감촉의 거품이 깨끗함과 촉촉함을 동시에 선사하는 프리미엄 클렌징폼
120ml | 65,000원대
- 다함설크림**
단상과 홍삼이 젊음의 에너지를 선사하는 피부 강화 혁신력 토탈 안티에이징 크림
60ml | 650,000원대

옴션 라인

- 살인팩**
옥의 기운으로 맑고 메이크업이 잘 지는 수분 팩
80ml | 85,000원대
- 여유팩**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여 다음 날 아침 피부 윤기가 되살아나게 도와주는 수분 팩
120ml | 52,000원대
- 옥유팩**
묵은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여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필 오프 타입 팩
150ml | 42,000원대
- 에올마사지크림**
크림과 오일이 조화를 이루어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촉촉함과 활력감을 동시에 선사하는 파밍 마사지 크림
120ml | 55,000원대
- 본유에센스**
주름 탄력 촉진력을 케어해주는 워터 쉬 타입의 안티에이징 에센스
140ml | 73,000원대

MEN

- 본유유액**
남성 피부 장벽 강화 및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손상을 케어해주는 고보습 안티에이징 로션
90ml | 52,000원대
- 본유크림**
피부 노화를 완화하는 인삼시 오일 성분의 고보습 안티에이징 크림
40ml | 90,000원대
- 밀렉싱UV프로텍터**
자외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편안한 피부 보호막을 만드는 남성 UV 프로텍터
50ml | 40,000원대

쿠션

- 퍼펙팅쿠션**
(SPF 50+ / PA+++)
오래 지속되는 기법과 미세한 케어와 촉촉하고 윤기 있는 마무리로 완벽한 메이크업을 연출하는 커버 윤기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15g 30,000원대)
-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SPF 50+ / PA+++)
묵은 추출물이 화사하게 해주는 브라이트닝 쿠션
15g x 2 | 6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 퍼펙팅쿠션 인텐스**
(SPF 50+ / PA+++)
깊고 건강한 동안 빛을 위한 안티에이징 쿠션
15g x 2 | 85,000원대 (리필 30,000원대)
- 멀티 쿠션 하이라이터**
피부에 생기 물감을 선사하는 펠 베이스 겸 하이라이터
8g | 40,000원대
- 파우더 쿠션**
피부 위에 공기처럼 섹팅되어 방금 꺼냈듯 화사한 듯한 산뜻함을 유지시켜주는 파니 파우더
8g | 40,000원대

메이크업밸런스

- 1호 라이트 핑크
2호 라이트 파플
3호 라이트 그린
- 메이크업밸런스**
(SPF 25 / PA++)
유 수분, 피부 힘·탄·결을 밸런싱하는 메이크업밸런스
35ml | 60,000원대

CC

- 1호 핑크 베이지
2호 미디어 베이지
- CC유액**
(SPF 34 / PA++)
매끈한 도기라 피부결로 표현해주는 유액 타입 CC
35ml | 60,000원대

쉬어 래스팅 메이크업

- 11호 포슬렌(핑크)
15호 아이보리(핑크)
17호 아이보리(베이지)
21호 내추럴(핑크)
23호 내추럴(베이지)
25호 샌드(핑크)
27호 샌드(베이지)
31호 하니(핑크)
33호 하니(베이지)
37호 엠버(베이지)
- 쉬어 래스팅 파운데이션**
(SPF 25 / PA++)
쉬어 하이dra 포몰러로 해사함을 선사하는 파운데이션 쿠션
58,000원대
- 쉬어 래스팅 젤 쿠션**
(SPF 35 / PA++)
멀링 젤 텍스처와 마이크로 광으로 해사함을 선사하는 쿠션
58,000원대

자정 메이크업

- 1호 화사한 색
2호 자연스러운 색
- 자정 에센스비비**
(SPF 50+ / PA+++)
하루 종일 밝고 화사한 피부를 유지시켜주는 화이트닝 에센스 EB
30ml | 60,000원대
- 자정 미백UV팩트**
(SPF 50+ / PA+++)
자외선과 유분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화이트닝 팩트
9g | 60,000원대 (리필 45,000원대)
- 에서 파운데이션**
(SPF 15 / PA+)
3중 보호막으로 촉촉하게 커버하는 파운데이션
30ml | 55,000원대
- 에서 스킨케어**
(SPF 25 / PA++)
크리미한 텍스처의 케이크 타입 파운데이션
14g | 58,000원대 (리필 42,000원대)
- 에서 트윈케이크**
(SPF 25 / PA++)
담담함 없이 커버해주는 트윈케이크
13.5g | 110,000원대 (리필 42,000원대)

에서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 에서 파우더**
섬세한 파우더가 화사한 톤으로 가꾸어주는 파우더
20g | 55,000원대 (리필 40,000원대)
- 진설 윤메이크업크림**
3가지 빛깔의 보석 파우더가 피부에 윤기를 표현하는 메이크업 크림
30ml | 90,000원대
- 진설 윤파운데이션**
(SPF 30 / PA+++)
피부 표면에 촉촉하게 밀착되는 프리미엄 파운데이션
30ml | 90,000원대
- 진설 윤팩트**
영원 파우더가 화사함과 윤기를 표현해주는 프리미엄 팩트
13.5g | 110,000원대 (리필 80,000원대)

진설 메이크업

-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 진설 윤메이크업**
21호 은은한 색
23호 차분한 색
- 진설 컨실러 스틱**
1호 미디어 핑크
2호 미디어 베이지
- 진설 컨실러 스틱**
부드럽게 도포되어 얼굴에 넓게 퍼져 있는 결까지 한번에 커버해주는 컨실러 스틱
5g | 40,000원대
- 레이디스 블러셔**
1호 핑크 하모니
2호 코랄 하모니
- 레이디스 블러셔**
자연스럽게 화사한 핏빛과 윤기 있는 피부 빛을 더해주는 멀티 컬러 블러셔
10g | 60,000원대
- 에센셜 립세럼 스틱**
자음생 보습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립

- 1호 애플라웃 세럼
2호 플라워 세럼
3호 플라워 핑크
4호 로즈 레드
5호 블라썸 코랄
6호 스윗 로즈
- 7호 딥 베리
8호 소프트 로즈
9호 글로우 오렌지
10호 비버드 핑크
11호 레이디스 레드
12호 소프트 오렌지
- 에센셜 립세럼 스틱**
자음생 보습막으로 생기 있고 탄력 넘치는 입술로 가꾸어주는 데일리 립 케어
3g | 40,000원대

아이브로우

- 31호 라이트 브라운
32호 애쉬 브라운
34호 딥 브라운
35호 다크 그레이
- 아이브로우 퍼펙터**
내추럴 컬러의 부드러운 발색으로 자연스러운 눈썹 연출할 수 있는 아이브로우 오토팬츠
0.3g | 20,000원대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윤조에센스미스트(4명)

오일&워터 에센스에 담은 자음단™이 미세하게 분사되어 즉각적인 보습과 영양을 공급하고 생기 있는 피부로 가꿔주는 미스트 타입의 에센스입니다.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관람권(3명)

화려한 캐스팅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관람권을 3명(1인 2매)께 드립니다. (티켓 수령은 추후 당첨자 개별 공지)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매거진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지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독자 엽서에 내용을 적어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는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8년 6월 15일까지
- 중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미스트,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관람권
- 당첨자 발표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란 참조

2018년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설화수 설링크림(4명)

- 김나현 경기 하남시 아라수로
- 한진숙 인천 연수구 독태로
- 김순이 충북 제천시 용두대로
- 정은희 서울 용산구 두타마로

뮤지컬 <삼총사> 관람권(3명)

- 전경주 충남 공주시 석장리길
- 장희경 강원도 춘천시 자석로
- 박순록 서울 성동구 독성로

2018년 3/4월호 당첨자 선물은 5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Sulwhasoo

雪花秀

피부피로를 다스리는 매화의 힘으로
더 탄탄해진 생기를 누리다

설화수 설링크림

아무리 건강한 피부라도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으로 인한 피부피로를 관리하지 못하면 피부 노화로 이어집니다. 매일매일 지치지 않는 피부 생기로 차오르는 설화수 설링크림 강력한 항산화에너지를 함유한 매화성분이 피부 피로를 다스리고 건강한 탄력과 생기를 깨워 눈부신 피부를 선사합니다.



<설화수 전국 매장>

FLAGSHIP STORE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02-541-9270

SPA

설화수 스파 롯데호텔서울 3~4층 02-318-6121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지하 1층 02-541-9272
 설화수 플래그십 스토어 4층 02-541-9273

백화점

서울특별시

-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148
-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192
- 롯데백화점 강남점 02-531-2165
-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5029
-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02-3707-1129
- 롯데백화점 관악점 02-3289-8140
- 롯데백화점 노원점 02-950-2152
- 롯데백화점 미아점 02-944-2046
- 롯데백화점 스타시티점 02-2219-3116
- 롯데백화점 월드컵점 02-3213-2056
- 롯데백화점 김포공항점 02-6116-3150
- 현대백화점 본점 02-3438-6072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614
- 현대백화점 신촌점 02-3145-2114
- 현대백화점 미아점 02-2117-1147
- 현대백화점 천호점 02-2225-7184
-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71
-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1
-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65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02-2639-4122
- 갤러리아백화점 압구정점 02-6905-3360
- 아이파크백화점 02-2012-4179
- 현대백화점 디큐브시티점 02-2211-0148
- AK플라자백화점 구로본점 02-852-6136

인천광역시, 경기도

-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450-2140
- 롯데백화점 부평점 032-452-2175
- 롯데백화점 안산점 031-412-7748
- 롯데백화점 평촌점 031-8086-9159
- 롯데백화점 수원점 031-8066-0157
- 롯데백화점 분당점 031-738-2172
- 롯데백화점 일산점 031-909-3224
-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47
- 롯데백화점 구리점 031-550-7912
- 롯데백화점 중동점 032-320-7135
- 현대백화점 중동점 032-623-2136
-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10
-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031-822-3140
-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032-430-1479
-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2
- 신세계백화점 의정부점 031-8082-0343
- 신세계백화점 하남점 031-8072-1801
-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 031-237-9890
- AK플라자백화점 분당점 031-709-9694
-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52
- AK플라자백화점 평택점 031-646-6130

부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부산점 051-805-0484
- 롯데백화점 동래점 051-552-4118
- 롯데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30-3183
- 롯데백화점 광복점 051-678-3166
- 현대백화점 부산점 051-667-0140
-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051-745-2296

울산광역시

- 롯데백화점 울산점 052-258-5784
- 현대백화점 울산점 052-228-0116
- 현대백화점 울산동구점 052-250-4173

대구광역시

- (주)대구백화점 본점 053-428-2961
- (주)대구백화점 프리아점 053-426-6036
- 롯데백화점 대구점 053-660-3054
- 롯데백화점 상인점 053-258-3106
- 현대백화점 대구점 053-245-2125
- 동아백화점 수성점 053-781-9296
-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053-661-1861

광주광역시, 전라도

- 롯데백화점 광주점 062-221-1139
-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062-368-6764
- 롯데백화점 전주점 063-289-3176
- 뉴코아아울렛 순천점 061-720-5151

경상도

- 롯데백화점 창원점 055-279-3116
- 롯데백화점 마산점 055-240-5193
- 롯데백화점 포항점 054-230-1190
- 신세계백화점 마산점 055-240-1263
- 신세계백화점 김해점 055-272-1108
- 갤러리아백화점 진주점 055-791-1165
- 동아백화점 구미점 054-455-6399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5.07.01~2024.09.0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40861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80-023-5454(수신자 요금 부담)

0 4 1 5 6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설화지혜(8p)	7	6	5	4	3	2	1
피부 섬기기(12p)	7	6	5	4	3	2	1
新 장인을 만나다(16p)	7	6	5	4	3	2	1
공간미감(22p)	7	6	5	4	3	2	1
진너다(28p)	7	6	5	4	3	2	1

2. 누리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설화인(36p)	7	6	5	4	3	2	1
어우리지다(44p)	7	6	5	4	3	2	1
설화풍경(50p)	7	6	5	4	3	2	1
설화보감(54p)	7	6	5	4	3	2	1
아름다운 기행(60p)	7	6	5	4	3	2	1
설화수를 말하다(66p)	7	6	5	4	3	2	1
설화공간(72p)	7	6	5	4	3	2	1

3. 익히다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배움의 기쁨(78p)	7	6	5	4	3	2	1
한국의 멋(82p)	7	6	5	4	3	2	1
설화애장(84p)	7	6	5	4	3	2	1
읽다(86p)	7	6	5	4	3	2	1
집 안 단장(90p)	7	6	5	4	3	2	1
몸 단장(92p)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었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상품 정보 제품 미용법 요리, 인테리어 및 패션
 공연, 전시 및 문화 정보 풍경 및 여행지 인물 인터뷰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주세요. (98p 참조)

설화수 윤조에센스미스트 뮤지컬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관람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5/6월호 (Sulwhasoo)의 엽서 응모 마감은 6월 15일입니다.

- * (주)아모레퍼시픽은 애독자엽서 추천 이벤트 참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주소, 성별, 나이,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애독자엽서 선물 발송
 - 보유 및 이용 기간: 애독자엽서 응모 마감으로부터 3개월
- 고객님께서서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부할 경우 이벤트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주)아모레퍼시픽은 이벤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에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취급위탁을 받는 자: 누리원기획, 가이미디어
 -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 엽서 이벤트 참여자 확인 및 당첨자 게시
-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강원도, 충청도
- 엠펙화점 춘천점 033-257-4129
 - AK플라자백화점 원주점 033-811-5502
 -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점 041-552-3358
 -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041-640-5017
 - 롯데백화점 청주점 043-219-9219
 - 현대백화점 충청점 043-909-4124
 - 롯데백화점 대전점 042-528-3320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042-488-5650
 - 세이백화점 042-256-0198

면세점

- 롯데 부산 면세점 051-810-3879
- 롯데 소공 면세점 02-759-6662
- 롯데 인천 면세점 032-743-2422
- 롯데 인천 탑승동 032-743-7947
- 롯데 제주 면세점 064-793-3138
- 롯데 코엑스 면세점 02-3484-9655
- 롯데 김포 면세점 02-2669-6730
- 롯데 김해공항 면세점 051-979-1932
- 신라 면세점 02-2230-3597
- 신라 인천 면세점 032-743-4488
-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 02-490-3351
- 신라 제주 면세점 064-710-3324
- 신세계 명동 면세점 02-6370-4109
- 신세계 면세점 051-749-1448
- 한화 제주공항 면세점 064-740-0144
- 한화 면세점 02-2136-2779
- 동화 면세점 02-399-3123
- 삼익 면세점 032-743-0543
- 에스엠 인천 면세점 032-743-1570
- 에스엠 면세점 02-2120-6210
- 시티플러스 면세점 032-743-5718
- 제주관광공사 시내 면세점 064-740-6904
- 두산타워 면세점 02-3399-9236

